

#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6호

2000

- 
- 花潭과 張載思想의 비교연구 張 敏 1
  - 한국기업의 corporate governance와 재벌의 구조개혁  
-현대그룹의 개혁계획을 중심으로- 高 龍 秀 12
  - The Contex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Korea  
Byungwoo Lim  
Jungsoo Yoon 36
  - 말기 환자의 물음 金 英 一 58
-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 花潭과 張載思想의 비교연구

北京大學 東아시아研究中心

張 敏

花潭先生의 이름은 徐敬德(1489-1546)、字는 可久、호는 復齋라고 한다. 그는 16세기 李朝시기의 대표적인 「氣論」에 관한 리론을 제창한 학자로서 학술계에서 「조선철학사에서 보기 드문 자연철학자」라고<sup>1</sup>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張載(1020-1077)의 호는 橫渠라고 한다. 그는 宋나라의 대유학자로서 「漢唐시대의 元氣論을 발전시켜 완벽한 氣一元論의 체계를 만들어냈다」고<sup>2</sup> 하는 평가를 받고 있을뿐 아니라 이와 더불어 原始儒學을 理學의 높은 단계으로 리론적으로 나 체계적으로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할수 있다.

한국의 金學主教授는 花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張載나 邵雍이 朱熹의 性理學의 大成에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한것처럼 李滉과 李珥의 理氣論형성의 교량이 되었던것 같다. 退溪李滉(1501-1570)은 12년、栗谷李珥(1536-1584)는 47년 徐敬德보다 뒤져서 세상에 나왔는데 이들은 徐敬德의 학문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性理學을 중국의 수준을 넘어 철학화시킬수가 있었던것이다.」<sup>3</sup>

조선의 유명한 철학자인 栗谷·李珥는 「花潭사상은 대체로 張載에서 나왔다」고<sup>4</sup> 지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논술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花潭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중국宋나라의 橫渠·張載이다. 花潭는 張載보다 49년 뒤져서 세상에 태여났다. 중국의 宋理學이 조선반도에 전래된지 3백여년이 되었을때에야 비로서 花潭의 氣一元論사상체계가 완성되었다. 花潭사상에 관하여서는 필자가 「徐敬德의 氣一元論」이란 제목으로 작년에 이미 론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조선철학사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花潭의 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하자면 花潭사상의 源流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076년 벼슬자리에서 물러선 張載는 자기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필생의 정력을 학문연구에 바쳐서 『正蒙』이란 저술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또한 56세가 되던 해 花潭은 심한 병에 걸려 병석에 누워있으면서도 고통을 이겨가면서 「太虛說」, 「理氣說」, 「原理氣」, 「鬼神生死論」 등 4편의 저술을 써놓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花潭의 4편 저술이나 張載의 『正

『蒙』은 모두 그분들의 일생동안 걸쳐 연구한 학문의 정수로 철학사상의 최고성과로 두분의 대표적 명작이라고 할수 있다. 4편과 『正蒙』을 비교하여 연구하게 된다면 花潭사상의 원류를 찾을수 있고 그 사상의 가치를 한층 더 깊이 파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조량국의 대표적 인물의 氣一元論사상에 있어서 그 이동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수도 있다.

그러면 아래에서 다음 네가지 측면으로 花潭과 張載사상을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 I 「虛는 氣다.」 그리고 「太虛는 氣다.」

花潭은 氣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太虛는 虛하면서도 비여있지 않은데 虛가 곧 氣다.」<sup>5</sup>

「한이 없는것을 太虛라고 하고 시작이 없는것을 氣라고 하는데 虛는 곧 氣다. 虛는 본시 끝이 없으며 氣도 역시 끝이 없다.」<sup>6</sup>

「太虛는 氣의 根源이다. 널리 퍼져있어 한계가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꼭 차 있어 비거나 빠진데가 없으니 한 가닥의 터럭이 용납될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손으로 떠봐도 텅 비고 그것을 잡아봐도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차 있는것이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수는 없는것이다.」<sup>7</sup>

우주에 가득 차 있는 氣의 상태와 원류로 되여있는 太虛는 청담하기에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것이지만 절대로 없는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있는 존재인것이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실은 虚가 아니라 實이다. 때문에 虚는 바로 氣인것이다.

이에 대하여 張載는 다음과 같이 자적하고 있다.

「太虛는 형체가 없으며 氣의 본체이다. 이것은 집산하여 변화의 객체로 된다.」<sup>8</sup>

「太虛에서 氣가 없을수 없으며 氣는 모여서 만물이 되지 않을수 없고 만물은 흘어져 太虛가 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렇게 순환하면서 출입하는데 모두가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여가는것이다.」<sup>9</sup>

「氣가 太虛에서 모였다 흘어졌다 하는것은 마치 얼음이 물에 녹는것과 같아서 太虛가 곧 氣이니 無란 없음이 아니다.」<sup>10</sup>

太虛란 도대체 무엇인가? 張載의 리해에 의하면 太虛란 氣다. 우주본체론에 있어서 氣로 변신된 太虛는 실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운동시키는

창조성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추상적인 규정이며 현실적인 개념이다.

「虛는 氣다」고 하는 花潭의 개념과 「太虛는 氣다」고 하는 張載의 개념은 意味가 류사하다. 그것은 모두 그들의 철학사상체계의 발단인것이다. 또한 이것은 佛教의 「寂滅」과 道家の 「有는 無에서 나온다」는 리론을 비판하면서 太虛와 氣의 개념을 되풀이하여 강조한것으로 된다.

花潭는 다음과 같이 佛教와 道家の 리론을 비판하고 있다.

「虛는 虛無가 아니라는것을 안다면 無라고 못한다. 老씨는 無에서 有를 낳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虛는 氣다고 하는 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虛에서 氣를 낳는다고 하는것도 틀린것이다. 만약 虛에서 氣를 낳는다면 낳기전에 氣가 존재하지 못할것이고 氣가 없는 이상 虛도 존재하지 못하여 결국 죽은것과 같을것이다. 때문에 氣가 없는 이상 어디 또 氣를 낳을수 있겠는가.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는데 어디에서 시작과 끝이 생기겠는가? 살아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멸망한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기실 虛無를 말하는 老씨나 寂滅을 말하는 佛씨는 모두 理氣의 源淵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道를 알수 있다고 하겠는가?」<sup>11</sup>

張載는 「有無混一이란것을 모른다」고 道家를 비판하고 있다.

「만약 虛가 氣를 낳을 수 있다면 虛가 무공하고 氣가 제한되어 體와 用은 서로 갈라지고 말것이다. 그렇다면 有는 氣에서 나올것이니 老씨의 자연리론과 혼동하게 된다. 老씨는 『有無混一』 이란 일반적인 도리를 모르고 있다.」<sup>12</sup>

객관적 사물에 의거하지 않고 心法에만 근거하여 有無를 혼용한 佛씨와 老氏는 無에서 有를 낳는다고 보니 體와 用을 갈라놓을수 밖에 없다. 그 잘못된 리론의 원인을 찾으면서 張載는 「有無混一」 이란것을 모른다고 지적하고 花潭는 理氣의 源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두 학자는 太虛、虛、氣、道를 다 같은 차원에다 놓고 그것들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인정했다. 「虛는 氣다」고 하거나 「太虛는 氣다」고 하거나 모두 세계만물의 본질적 속성은 實이고 우주본체의 물질적 성격은 현실의 존재라는것을 강조한것이며 이것은 바로 Hegel의 논리학의 시작은 有와 無의 통일<sup>13</sup>하는 리론과 일치하게 된다. 즉 有는 無를 포함하고 無는 有를 포함하여 양자는 서로 침투하고 있는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부터 구체적인것으로 올라가는 회전식 인식론의 방법은 인식과정의 새로운 길을 밝혀주었다.

## II 「理의 時」 와 「一物二體」

花潭은 「理氣說」에서 理의 時란 개념을 내놓았다.

「先天은 奇인가? 奇이다. 妙한가? 妙하다. 갑자기 열렸다 닫피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시킨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자신이 한 노릇이다. 시키는자가 없이 부득불 하는것을 理의 時라고 한다.」<sup>14</sup>

「그라고 해서 합할수 있다.一라고 해서 妙하다. 변화하는것 외에 妙한것이란 없다. 理氣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게 되는것은 太極의 妙다.」<sup>15</sup>

張載는 「一物二體」란 개념을론술하고 있다.

「一物二體란 氣다. 一라고 해서 신통하다. 二라고 해서 합하는것이다. 하늘의 행사가 진행되는 까닭은 바로 그것이다.」<sup>16</sup>

「氣의 源은 虛의 상태이여서 단백무형이다. 갑각하게 되면 나타나는것이고 모이며 像이 된다. 像이 있는 이상 꼭 대상이 있는 법이다. 대상이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화합하기도 한다. 대립하면 서로 원쑤로 되고 화합하면 친구로 되여 화목하게 지내게 된다.」<sup>17</sup>

소위 一物二體란 氣의 본체로부터 氣化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결시킨 리론이다. 물질로서의 氣가 그 성질에 따라 음양 두 가지로 나누인다. 음양은 항상 투쟁의 대상으로 되기도 하고 화목한 친구로 되기도 한다. 그것은 대립적 통일체이기 때문이다.

花潭과 張載는 異口同聲으로 「二라고 해서 化한다」고 감탄하였다. 陰陽、動靜、二體、二面등은 모두 다 氣내부구조의 대립면이다. 二는 서로 모순운동을 진행할수 있다. 거듭되는 운동과정에서 氣가 변화하고 발전해나갈수 있다.

花潭은 「一은 妙이다.」고 하고 張載는 「一은 神이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一이란 太極、太虛、道를 가리킨것이다. 太極의 神妙감은 氣의 본체의 범위이다. 결국 氣는 一과 二의 우주본체이며 二와 一의 우주운동과정이다. 전자는 氣의 體라 하여 후자는 氣의 用이라 한다. 이런 有用不二 一物二體、有無混一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氣의 운동법칙은 미묘하기도 하고 신통하기도 하다. 一과 二의 氣의 변증적 관계를 설명분석하면서 氣化를 규정짓고 그것의 합법칙성에 대하여 花潭는 일괄해서 理의 時라고 말하고 張載는 一物二體라고 결론을 내려 氣의 구조상의 변증적 관계와 물질변화의 변증법을 뚜렷이 설명해 놓았다.

### III 「機自爾」와 「動必有機」

氣운동의 원인을 찾을때 花潭은 「機自爾」라는 독특한 개념을 제출했다.

「氣의 근원은 그 시초가 일인 것이다. 이미 氣가一이라 하였으니 곧 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太虛도 一이므로 그 속에는 二를 함유하고 있다. 이미 二가 되면 여기에는 닫히고 열림이 없을수 없으며 움직임과 고요함이 없을수 없고 생성과 극복이 없을수 없는 것이다.」<sup>18</sup>

「動靜이 없을수 없고 開閉가 없을수 없는 원인은 무엇인가. 機自爾다.」<sup>19</sup>

장재는 「動必有機」로 氣化의 능동성을 설명했다.

「움직이는 물건은 動必有機다. 즉 물건을 돌리도록 발동시킨것이 꼭 있을것이다. 機란 氣내부의 機요 외부의 機가 아니다.」<sup>20</sup>

「太虛에는 氣가 없을수 없으며 氣는 모여서 만물이 되지 않을수 없고 만물은 흘어져 太虛가 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순화하면서 출입하는데 모두가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다.」<sup>21</sup>

一物二體는 세계만물의 본질적 대립 통일관계를 설명한다면 그 一과 二의 내부에 氣化운동을 시키는 동기와 원인이 꼭 있을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花潭과 張載는 상당히 고심하였다.

북경대학의 풍우란교수는 橫渠의 학문은 易의 계통을 이어서 나온것이라고<sup>22</sup> 말씀하셨다. 『易經』 속의 「계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易이란 聖인의 幾를 깊이 연구한것이다.」<sup>23</sup>

고대중국어에서는 幾와 機의 의미가 같은것인데 그것은 징조、직관、사소한 물질적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易이란 즉 변화한다는 의미다. 사소한 물질적 변화의 요소는 종래로 聖인들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온 내용이다.

氣의 특징은 변화와 운동이다. 張載가 말한 「動必有機」은 氣운동을 하게 되면 機가 꼭 나타난다는 뜻이다. 太虛와 만물의 관계속에서 찾아내는 機의 본질적 특징은 능동적인 것이다. 太虛의 機가 가지고 있는 능동성에 氣화의 영원성과 氣의 불명성을 유지하게 된다. 「動必有機」는 氣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운동하게 되는 능동적인 機가 있다는것을 지적해냈지만 그 機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장재는 투철하게 해설하지는 못했다. 花潭은 一과 二의 氣의 내부에 깊이 파고들어가 氣운동을 시키는 機가 氣의 외부로부터 오는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機自爾란 內因論 혹은 自因論을 새롭게 제기한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그 어떤 주관적인 개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自律性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영원히 운동하여 변화해나가는 氣는 천하만물을 한결같이 통일시킬

수 있는 객관적 실제적 존재로 당당히 내세우게 되었다.

## V 「復의 機」와 「靜의 動」

天地를 움직이는 기본적 요인은 뛰인가를 탐구하면서 옛날부터 聖賢들이 「易經」의 復폐를 해놓고 하늘과 땅의 마음은 어디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치렬하게 논쟁해왔다.

유명한 宋나라의 유학자인 王弼은 고요함이 천지의 마음이라 움직임이 천지의 기라고 했다. 程頤는 움직임의 발단이 천지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邵雍은 움직임과 고요함의 중간으로 천지의 마음을 설명했다. 朱熹는 動과 靜을 겸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천지의 마음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하여 張載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靜이 動이다. 쉬는때가 없다. 따라서 그 폐상은 坤과 雷로 되여 있다. 그것은 반복이라고도 한다. 끝장이 있으면 시작이 꼭 있을 것이다. 순환반복은 무궁하다. 입이란 화합과 재생을 가리킨다. 심이란 반대의 뜻이다. 機란 반복되는 것으로 道를 반복시킨 것이다.」<sup>24</sup>

「해와 달이 바뀌면서 날이 밝는다. 추위와 더위를 바꾸면서 세월이 흐른다. 신통하고 형태없는 一陰一陽은 예측하지 못한다. 그것은 모두 낮과 밤을 통달하는 道다.」<sup>25</sup>

『易經』의 제 24괘는 復폐인데 그 윗부분은 坤의 폐상이고 아랫부분은 우뢰의 폐상이다. 고요한 대지에서 약동하는 봄의 우뢰가 울릴가 말가 하는 때이다. 고요함 속에 품고 있는 움직임의 변화의 징조이다. 『易經』에서 형이상학은 道다. 一陰一陽은 道라고 써여 있다. 그리하여 佛家와 道家는 儒家의 道는 불과 一陰一陽뿐이라고 해서 엿보고 있었다. 張載는 걸어가는 길은 道라고 하는 道의 본의와 道는 형태없는 自然의 道라는 玄學의 의미를 결합시켜 動에 의하여 一陰一陽이 반복하는 氣化의 전과정이 道라는 새로운 의의를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끝없이 순환반복하는 해와 달, 춘추세월, 밤과 낮은 道라고 하였다. 張載의 새주장은 결국 動의 機에 의한 반복운동은 道라는 것이다.

花潭은 「復의 機」란 견해로 천지의 마음을 리해했다.

「근본으로 돌아가고 고요함으로 회복되는 것은 坤의 때이고 陰의 氣가 발동되는 것은 復의 機다. 있고 없음의 극치도 여기에 견줄 수 있으며 先天、後天의 설도 따라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易經』에서 말한 고요히 움직이지 않으며 감응이 있으면 마침내 통달하게 된다는 것도 이것을 말한 것이다.」<sup>26</sup>

화담은 「至日」의 도리를 가지고 천지의 마음을 해석했다. 천지가 한바퀴 돌면 365점 4분의 1도로 되여 1년에 365점 4분의 1날이 있다. 至日로 해시계로서 재어 보면 도와 날의 시간이 꼭 본수로 돌아와 딱 들어맞으며 언제나 틀리지 않는다. 夏至가 되면 해의 궤도가 남쪽으로 돌아가며 북녁땅까지 따뜻해지고 冬至가 되면 양지가 대지위에 불어온다.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일년 사철이 엇바뀌면서 한시도 면추어있지 않는 하늘과 땅의 변화는 언제나 바르고 알맞으며 영원하다. 천지가 운동하는 계기는 陽氣가 발동하는 復의 기틀이다. 冬至날부터 陽氣를 발동하기 시작하고 고요함으로부터 움직임에 전환해가게 된다. 하늘과 땅을 변화시키는데서 復의 機는 큰 역할을 놀고있다.

花潭의 「復과 機」와 張載의 「靜과 動」이란 설이 겉으로 보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 출발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가 아니라 모두 발성론의 차원에서 천지가 변화발전한다는 법칙을 론술한것이다. 張載는 반복의 도를 강조하고 화담은 그 반복의 그틀을 강조한것이다. 고요함과 움직임 및 음과 양등이 본시 두가지가 아니라 다만 한가지의 기틀을 지녔는데 두루 돌면서 멈추지 못한것이다. 氣의 운동은 언제나 復의 機를 기준으로 순환반복할때마다 새로운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 結 論

花潭의 사상은 氣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虛는 氣、理의 時、機自爾、復의 機와 같은 철학적 개념과 순서는 그의 氣일원론의 기본적 틀로 되여있다. 우주에 가득 차있는 氣이 상태가 보이지 않지만 절대로 없는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있는 존재이다. 그것은 虛로 보이지만 실은 虛가 아니고 實이다. 虚가 바로 氣다. 氣의 성질과 구조에 의하여 陰陽二氣를 나누고 서로 모였다가 갈라지고 모순되였다가 화합하므로써 氣를 운동시킨다. 氣를 운동시키는 원인은 氣의 외부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다. 그것은 氣自爾이다. 氣의 運動의 리치와 법칙을 규정하는 理의 合理性과 정확성에 언급되어 理의 時라는 개념이 규정되었다. 『易經』의 復괘에 의하여 至日로 復의 機의 의미를 풀었다. 언제나 순환왕복하여 간신히 전해나가는 氣의 운동법칙을 통하여 자연계의 통일성원리가 밝혀진것이다. 14세기 초두에 중국의 성리학사상이 조선반도에 전래되었다. 또한 14세기 말기에 李씨조선이 새로 건국되면서 정교합일하는 바람에 理學을 李朝의 國敎로 삼게 되였다. 16세기에 이르러 조선리학의 쌍봉이라고 불려온 退溪李滉과 栗谷李珥를 비롯한 主理派와 主氣派의 人物性情四七論爭을 크게 벌림으로써 조선리학의 思惟의 최고단계로 오를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리학은 송나라에서 受容한것이기 때문에 도덕논으로서의 原始儒學으로부터 性理學의 형이상학적 리론으로 발전시킨 우주론

과 본체론면에는 아직 보족한것이라 볼수 있다. 때문에 李朝 말기에 이르러 조선리학이 宗教化와 黨爭의 곤경에 빠지게 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花潭의 氣 일원론의 철학사상은 독특한 특징으로 조선리학의 우주론의 부족한 면을 보충해 준것이다. 그리고 主氣派의 대표적 학자인 粟谷李珥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17세기 말기에 일어난 조선실학사상에 리론적인 근거를 제공해줄수 있었다.

『易』는 中國哲學思想의 원천의 발단이라고 말할수 있다. 본시 점술책으로서의 『易』의 변증철학사상은 儒家와 道家의 해설에 의하여 계승되어왔다. 漢나라 때에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있던 儒學은 전래해온 佛教와 中國의 原始道教사상부터 심한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儒學의 도덕률리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초도덕논의 형이상학의 佛教와 道家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던것이다. 당나라에 와서 더욱 흥성하게 된 불교는 儒學을 대신하는 추세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와 달리 또한 儒學의 振興을 위해서 신유학리론의 재건설에 힘을 기울리는 유학자들이 일떠서게 되었다. 먼저 宋나라의 周敦頤(1017-1073)가 「太極圖說」을 내놓고 原始儒學에 없었던 太極、陰陽、五行、萬物과 같은 우주발생론의 리론체계를 처음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無極부터 太極으로」라는 그의 리론의 출발점은 道家의 「有는 無에서 태여났다.」고 하는 리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어서 張載는 太極、太虛、天、道、人、性、萬物을 일체로 만들어 太虛의 氣라는 氣本論理論을 내놓게 된다. 有와 無、虛와 實、陰과 陽、動과 靜등을 통일시켜 형이상학과 형이상학을 겸한 통일체로서의 太虛는 氣라는 실제적인 존재인 것이다. 太虛는 그 어떤 주관적인 개념에 의해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氣의 「動必有機」란 능동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운동하여 변화해가는것이다. 이런 리론은 佛教의 「空」과 道教의 「虛無」의 리론을 철저히 부정하고 周子의 잘못을 고치고 보충한것이다. 그러므로 오래동안 학자들이 거듭 논쟁하던 有無、虛實과 같은 미해결점들은 張載의 「有無混一」이란 설에 의해서 처음으로 有無論을 변증론적으로 해결된셈이다.

張載는 전통적 儒學의 형이하학적 도덕론과 불교、도가의 형이상학의 본체론을 결합시켜 태虛、氣、道、性、心、誠이란 철학체계의 시스템을 이루게 된다. 「誠」은 張載思想의 귀결점이다.

「하늘이 영원히 존재하는 까닭은 誠에 있다.」<sup>27</sup>

誠은 원래 『中庸』의 내용이다.

「誠이란 天의 道다. 誠을 실시하는것은 사람의 道다.」<sup>28</sup>

중국고대의 소박한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張載도 자연사와 인류사를 서로 떼여

낼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것이라 보았다. 그는 물질이 변화발전하는 최고산물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여『西銘』을 써서『正蒙』의 최종 편으로 했다.

「乾는 아버지라 부르고 坤은 어머니라 부른다. 나는 이 아득한 곳에 바로 한데 어울리여 그 속에 있는것이다. …백성들은 나의 동포요. 물건들은 나의 친구이다. …」<sup>29</sup>

이 세계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와 같이 天地로부터 태여나기에 물론 다 자기의 동포형제들이다. 나는 천지의 아들로서 응당히「天地를 위하여 똑바로 마음을 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道를 개척하여 성민들의 학문을 이어받아 계승하며 천추만대를 위하여 태평세계를 열려야 한다.」<sup>30</sup>고 하는 張載의 명언은 봉건사회와 유토피아사회를 구상하여 士大夫 인테리들에게 최고理想境界를 그려주었다.

花潭先生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 그의 제자 許驥은 退溪李滉한테 다음과 같이 물었다.

「花潭은 橫渠에 비길수 있습니까?」<sup>31</sup>

李退溪는 한마디로 부정해버렸다.

「『正蒙』에 비길수 있는 花潭의 저작은 어디 있느냐? 『西銘』에 비길수 있는 花潭의 책이 어디 있느냐?」<sup>32</sup>

확실히 張載의『西銘』은 道와 性을 잘 결합시킨 뛰여난 명작이다. 역대의 유학자들은 모두 그것을 인간도덕수양의 최고표준으로 삼았다. 朱熹는 도덕수양 면에 있어서 여태껏『西銘』을 초과하는 책이 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조선의 朱子라고 불려온 李退溪도 그렇게 생각할수 밖에 없다.

하지만 花潭사상은 두가지 점에서 張載하고 비갈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花潭의 「機自爾」란 견해는 張載의 「動必有機」란 리론보다 더욱 뚜렷이 사물의 모순운동의 自律性과 내인론을 밝혀내놓았다. 花潭의 「復의 機」란 리론은 그의 철학체계의 귀결점을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해서 철저한 유물주의적 입장에 서게 했다. 張載는 氣一元論을 완성한 다음에 人性과 天性、心의 誠과 天의 誠을 혼돈 시켜 氣二元論의 경향이 있다. 人道와 天道를 동등하게 하는것은 張載의 철학체계에서 모순되지 않지만 사회의 합법칙성과 자연의 합법칙성을 혼돈하는 편향이 있다. 張載는 周子의 「太極圖說」의 二本論을 氣一本論으로 고쳐놓았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다. 그후에 程子와 朱子는 張載의 「太虛는 즉 氣다」고 하

는 氣一本論을 리용하여 간단히 「性은 즉 理다」고 하는 理一本論으로 변신시켜 놓았다.

그러므로 花潭의 제자인 朴諱(1523~1589)은 다음과 같이 자기의 선생님을 칭찬하였다.

「經傳에서의 陰陽에 대한 론설은 다 천지이후로부터 시작한것이고 천지이전의 陰陽에 대한 론설이 없었다. 원천을 꾀내고 근본을 끌어재기는 張載의 太虛一氣說인데 이것은 여태껏 성인들이 채 발견하지 못한것이었다. 花潭은 張載가 채 이르지 못한 이론을 밝혀내여 충분히 설파해놓았는바 이것이야말로 고명한것이다.」<sup>33</sup>

#### <참고문헌>

1. 『韓國學報』 「花潭劃潭徐敬德의 自然哲學」 金兄孝 p.78
2. 『宋明理學』 陳萊 遼寧教育出版社 1992 p.21
3. 『花潭集·思辨錄』 韓國名著大全全集第十五卷 1975 p.69
4. 『同上書』 卷三 言行雜錄 p.419
5. 『同上書』 卷二 太虛說. p.3
6. 『同上書』 卷二 理氣說 p.339
7. 『同上書』 卷二 源太虛 p.334
8. 『張載集』 「正蒙」「太和鞭」 中和書局 1978 p.7
9. 『同上書』
10. 『同上書』
11. 『花潭集』 卷二 太虛說 p.340
12. 『張載集』 「正蒙」「太和鞭」 p.8
13. Hegel 『론리학 및 그법위분석』 山西人民出版社 1990 p.67
14. 『花潭集』 卷二 原理氣. p.334
15. 『花潭集』 卷二 理氣說. p.339
16. 『張載集』 「正蒙」「參兩編」 p.10
17. 『張載集』 「正蒙」「太和平編」 p.10
18. 『花潭集』 卷二 理氣說 p.338
19. 『花潭集』 卷二 原理氣 p.334
20. 『張載集』 「正蒙」「參兩編」 p.11
21. 『張載集』 「正蒙」「太和鞭」 p.7
22. 『中國哲學史』 하집 풍우란 中和書局 p.853
23. 『周易本義』 系辭上傳 廣州出版社 1993 p.173
24. 『張載集』 「正蒙」「大易編」 p.53
25. 『張載集』 「正蒙」「太和編」 p.9
26. 『花潭集』 卷二 復其見天地之心 p.348
27. 『張載集』 「正蒙」「誠明編」 p.98
28. 『四書集注』 「中庸章句」 海南出版社 1992 p.96

- 29.『張載集』「正蒙」「西銘」 p.260
- 30.『張載集』「正蒙」「西銘」 p.266
- 31.『花潭集』卷三 言行雜錄 p.419
- 32.『同上書』
- 33.『思庵集』卷四 楞李淑獻書

# 한국기업의 corporate governance와 재벌의 구조개혁

## – 현대그룹의 개혁계획을 중심으로 –

甲南大学

高龍秀

### 머릿말

1997년, 연쇄적인 통화위기가 아시아 여러나라로 퍼졌다. 그 직후, 구미에서는, 아시아의 기업과 금융기관 경영의 불투명성이나 crony capitalism(연고 자본주의)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며, 그것을 지탄하는 논조가 주류를 차지했다. 그런데 98년에, 금융위기가 러시아, 브라질 등 중남미로 파급되어, 지구를 일주하고 미국의 해지펀드 LTCM의 파탄과 미당국에 의한 구제국에 이르자, 단순히 아시아의 crony capitalism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를 순식간에 이동하는 단기자금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하는 문제가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통화위기로 외화가 고갈되어, IMF로부터 엄격한 conditionality를 조건으로 구제융자를 받은 동아시아 제국에서는, IMF와 OECD의 「지도」를 받아, 경영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고 corporate governance (기업통치)를 개혁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한국에서는, catch-up 단계에서 재벌총수가 독점적으로 강대한 권한을 가지고, 다른 경제주체로부터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기업시스템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통화위기를 전후로 해서, 더해가는 노동운동에 의한 견제, 민주화의 흐름을 이어받은 시민운동에 의한 소액소유주운동이나 주주총회에서의 이의신청, 주주대표소송, 통화위기후에 증대한 외국인주주의 견제등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현재, 이러한 다면적인 의미에서 한국기업의 corporate governance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통화위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 1. 한국기업의 corporate governance와 개혁과제

#### (1) 한국기업의 주식소유 분포

선진국기업의 corporate governance에 대해서는, 근년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sup>1</sup>, 한국에서도 기업구조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시점에서 한국기업의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연구가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sup>2</sup>. 그러한 연구들을 참고로, 한국 기업의 corporate governance의 특징을 일, 미, 독 등의 기업과 비교하며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표 1-1> 미국, 일본, 독일의 주식소유 분포

	(주정되는 투자목적별)	(단위:%)	
	미국	일본	독일
개인	30~35	20	4
기관투자가 : 장기고정적	2	40	27
기관투자가 : 순수한 투자목적	55~60	6	3
기업	2~7	30	41
정부	거의 없음	거의 없음	6
해외투자가	6	4	19

주 : 1. 미국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브로커의 어드바이스에 완전히 의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을 빼고, 그 만큼 「기관투자가 : 순수한 투자목적」에 이동시켰다. 또 「기관투자가 : 장기고정적」에는, 보험회사가 자체 계산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

2. 일본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의 일부에 대해서는, 높은 회전율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독일의 「기관투자가 : 장기고정적」에는, 은행에 기탁된 개인 보유의 주식으로, 은행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부분 (14%) 을 포함한다.

(출처) 深尾光洋・森田泰子『기업 governance 구조의 국제 비교』 일본경제신문사, 1997년, 39페이지.

<표 1-2> 한국 상장회사의 주식소유 분포

	(총 발행주식에 대한 비율)	(단위 : %)
기관투자가	8.2	14.4
은행	5.9	7.1
증권회사	2.2	7.4
투자신탁회사	n.a	n.a
보험회사	n.a	n.a
그 외 금융기관	n.a	n.a
법인기업	19.4	30.0
개인주주	56.9	52.5
외국인	2.0	2.6
정부 공공기관	14.5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증권거래소 『주식』, 각년도

&lt;표 2&gt; 주요 재벌의 내부소유비율, 1983~1997년 (%)

(30 대 재벌 평균)	1983	1987	1991	1995	1997
동일인 (A)				4.9	3.7
특수관계인 (B)				5.6	4.8
A+B	17.2	15.8	13.9	10.5	8.5
계열회사 (C)	40.0	40.4	33.0	32.4	33.7
자사주보유 (D)				0.4	0.8
A+B+C	57.2	56.2	46.9	42.9	42.2
A+B+C+D				43.3	43.0
(4 대 재벌의 내부소유비율)					
현대	81.4	79.9	67.8	60.4	56.2
삼성	59.5	56.5	53.2	49.3	46.7
대우	70.6	56.2	50.4	41.4	38.3
LG	30.2	41.5	38.3	39.7	40.1

주 : 1983년은 9월 현재, 1987~1997년은 4월 현재

(출처) 金東運『한국 재벌의 지배구조』(주 11) 76페이지

먼저 <표1>을 참조하면서, 상장기업의 주식소유 분포를 보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연금기금이나 투자신탁 등의 기관투자가에 의한 주식소유비율이 55~60%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장기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계열기업이나 은행등의 금융기관의 소유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sup>3</sup>.

한편, 한국에서는 개인주주가 40%를 넘고, 기업이 20%전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1994년에 한국 상장기업에 있어서, 대주주 한 사람의 소유비율은 20%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개인주주는 미국의 개인투자가와는 달리, 재벌총수 일족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sup>4</sup>. <표2>로 제시한 것처럼, 30대재벌에서는 96년 4월 현재, 동일인, 특수관계인(재벌총수와 일족)이 10.3%, 재벌산하기업이 33.8%로 44.1%가 내부소유이고, 30대 재벌에서 이러한 내부소유 비율은 90년대에도 일관되게 40%강을 유지하고 있다<sup>5</sup>. 또, 현대나 삼성등의 상위재벌에서도 3대재벌 평균 이상의 내부소유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표3>에서 보이는 듯이, 5대재벌의 비상장기업에서는, 내부소유비율이 58%(LG)에서 80%(SK)로 매우 높다.

&lt;표 3&gt; 5 대 재벌의 내부소유비율, 1997년 (%)

재벌	동일인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자사주보유	합계
현대	2.12	8.99	24.72	1.47	37.30
	4.66	12.06	59.72	0	76.44
삼성	1.20	2.51	19.57	1.37	24.65
	0.74	2.61	64.21	0	67.57
LG	0.12	4.64	10.68	1.26	16.69
	0.33	3.87	54.10	0	58.31
대우	3.72	2.95	23.16	1.25	31.08
	2.44	0.66	70.15	0	73.25
SK	2.98	3.04	13.10	0.63	19.75
	16.11	9.53	54.36	0.1	80.1

주 : 상단의 숫자는 상장기업의 내부소유비율, 하단은 비상장기업의 내부소유비율.

(출처) &lt;표 2&gt;와 같음, 78페이지

또한, <표1-2>의 은행(근년까지 정부의 강한 통제하에 놓여 있었음), 투자신탁회사의 주식소유의 대부분은 「순수한 투자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의 대부분은 재벌의 계열회사로, 이들에 의한 주식소유는 지배주주로서 고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렇듯 한국재벌은, 일본 이상으로 내부소유비율이 높고, 폐쇄적인 소유구조를 이루고 있어, 그룹내 법인출자에 의한 계열사간의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얹혀 있다. 또, 총수일족의 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서 소유자가 실질적인 경영자도 겸하고 있는 소유경영자체제를 이루고 있다.

## (2) 재벌총수에 의한 경영지배

다음으로, 재벌의 기업통치에 있어서 총수<sup>6</sup>의 위치와 영향력에 대해 보기로 한다.

<표4> 한국 대기업에서 실질적 소유자가 최종권한을 갖는 비율 (1991년)

경영의사 결정 시항	비율
중역의 인사권	79.9%
신규사업의 투자결정	66.4%
해외 진출 결정	55.4%

(출처) 金龍烈, IMF 체제 이후의 기업지배제도의 전개방향

산업연구원, 1998년, 41페이지

한국의 재벌은 수십개의 산하기업으로 이루어진 기업 집단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 중핵기업에서는 창업자 일족이 최고경영자로 되어 있지만, 산하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창업자 일족 이외의 전문경영자가 산하기업의 경영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987년에는 상위20대 재벌임원의 31%를 창업자 일족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대기업에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면, 형식상의 최고경영자가, 실질적 소유자나 대주주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전문경영자일 비율은, 84년의 43%에서 91년의 67.3%로 상승하고 있으나, 일본의 80%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그러나, 이를 전문경영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보면, 한국에서 경영자지배가 정착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한국 대기업의 경영의지결정을 보인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은, 개별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아닌 그룹전체의 조정을 통해서 그룹총수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유교적 전통 등의 문화적 영향도 받아, 가장인 재벌총수가 그룹전체에 대한 경영결정권과 주식소유권에서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 집권적 기구는 텁 다운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반면, 체크기능이 약해, 경영책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경영권과 소유권지배의 문제에 대해서, 현대그룹을 사례로 들어 보자. 현대그룹은 <표5>에서 보인대로, 1997년에 57개사의 산하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조선:비상장), 현대건설등이 업계 최고의 기업이고,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한국유수의 재벌이다. 그러나, 한국5대 재벌 안에서도 총수에 의한 주식소유, 경영권 지배가 상대적으로 강해 서, 이러한 의미에서도 한국재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주식소유구조를 보면, 1997년 4월 1일 현재, 한국의 30대재벌의 내부소유비율이 43%인 것에 대해, 현대 그룹은 56.2%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표2참조). 또, 97년 말의 30대재벌의 상장기업에서는, 총수일족의 소유가 6.55%, 산하기업이나 재단법인의 소유를 포함한 내부소유가 29.61% 인 것에 대해, 현대의 상장기업에서는 총수일족의 소유가 12.19%, 내부소유가 41.03%이다<sup>8</sup>. 후반부에서 보게 되듯이, 현대에서도, 총수일족과 산하기업은 매우 높은 내부소유를 유지하고 있어, 총수일족에 의한 소유지배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영면에서도 <도표1>에서 알 수 있듯, 총수의 차남, 정몽구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정공, 인천제철, 현대강판 등의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오남, 정몽현이 현대건설, 현대전자, 현대상선, 현대종합상사 등의 대표이사회장을 맡고 있는 등, 일족이 중요한 산하기업의 경영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재벌기업의 corporate governance에서 이러한 산하기업의 소유, 경영지배만이 아니라, 그룹전체를 통괄하는 그룹회장이라고 하는 제도나, 종합기획실(현대), 회장비서실(삼성) 등, 그룹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스텝 조직)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현대그룹에서는 1969년 1월에, 그룹전체를 통괄하는 그룹회장제가 제정되어, 창업자인 정주영이 그룹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87년 1월에 정주영의 동생, 정세영이 그룹회장이 되고 정주영은 명예회장이 되었다. 96년 1월에는 그룹회장이 정세영에서 정몽구로 바뀌고, 동시에 정몽현이 그룹부회장이 되었다. 그 위에 98년, 정몽현은 두번째 회장으로 승격했다<sup>9</sup>. 정몽현, 현대건설 회장의 그룹회장 승격은, 대북한사업을 향한 포석을 위해, 정주영과 함께 이 사업을 통괄하고 있는 정몽현을 승격시킨 것이라고도 전해지고 있다. <표4>에서 볼 수 있듯, 그룹회장(또는 총수)은, 산하기업의 임원인사권, 신규사업의 투자결정이라고 하는 중요사항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룹회장은 회사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정주영은 87년에 그룹명예회장이 되었는데, 지금도 「왕회장」이라고 불리우며, 총수로서 그룹회장의 임명권 등, 중요 사항의 결정에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sup>10</sup>. 게다가 LG그룹(구, 럭키금성)에서는, 그룹회장이 창업자인 구인회에서 장남 구자경으로, 다시 그 장남인 구본무에게 계승된 것처럼, 그룹의 주식소유와 경영권이 기본적으로 세습되고 있는 상황이 보인다<sup>11</sup>.

또 대학신출자 등의 채용은 개별기업이 아닌 재벌그룹단위로 이루어지는 등, 총수의 통괄 아래, 그룹 전체가 하나의 기업체라도 되는 듯한 경영체제가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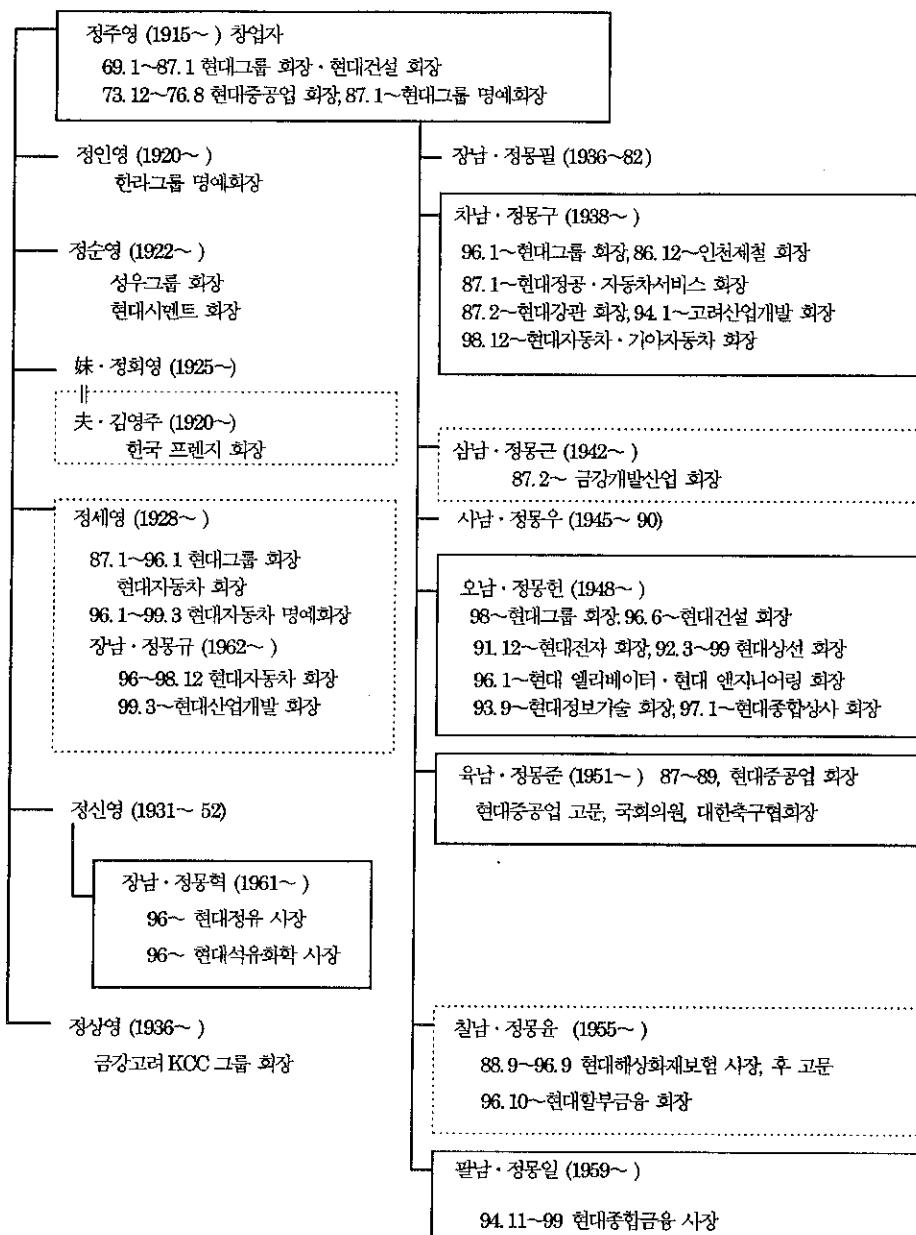
<표 5> 현대그룹 주요 32 기업의 경영지표(총자산·매상고는 1997년말) (단위 : 억원)

	총자산	매출고	입종	비고
< 자동차·운송장비 부문 (7사)>				
*현대자동차(주)	67년	100,021	116,620	자동차제조·판매
*현대자동차서비스	74년	44,606	55,538	자동차판매·장비
*현대정공	77년	27,599	26,040	시률구동차, 콘테이너, 공작기계, 철도차륜
△현대중공업	73년	92,068	58,891	조선·플랜트
*현대미포조선	75년	4,516	3,609	선박수리, 기조
*한국프렌치공업	74년	2,182	1,887	자동차부품·운송장비
케미코	87년	1,878	1,691	자동차부품제조
< 건설 부문 (4사)>				
*현대건설	50년	94,568	55,074	건설업
*현대산업개발	77년	29,052	21,323	주택건설
*고려산업개발	76년	9,082	5,864	건설업
현대엔지니어링	74년	2,597	3,794	건설판관서비스
< 전자·기계 부문 (2사)>				
*현대전자산업	83년	107,642	34,910	반도체, 정보, 산업전자
*현대엘리베이터	84년	2,372	2,626	엘리베이터
< 석유·화학 부문 (2사)>				
△현대정유	64년	32,702	30,960	석유정제
△현대석유화학	88년	37,752	7,092	석유화학
< 제철·1차금속 부문 (4사)>				
*인천제철	64년	19,464	16,754	제강, 입연 수단강
*현대강관	75년	11,555	5,149	철강제조
*대한알류미늄	73년	6,341	3,725	알류미·합금
현대알류미늄	75년	1,441	1,568	알류미·합금
< 금융업 (5사)>				
*현대해상화재보험	55년	19,227	15,810	금융보험업
*현대종합금융	76년	28,777	3,608	종합금융업
*강원은행 <sup>2</sup>	70년	37,319	3,267 <sup>3</sup>	자본은행
*현대증권	62년	16,228	3,210	증권업
현대할부금융	93년	18,399	1,709	금융서비스
< 무역·운수·소매·그 외 (8사)>				
*현대종합상사	76년	10,003	250,414	종합무역업
*현대상선	76년	38,614	30,952	해양운송
*금융개발산업	71년	10,763	12,272	백화점·호텔
△현대정유판매	73년	7,828	15,200	정유도매
현대리카드	77년	3,906	5,146	목재·제지·출판
현대정보기술	93년	3,924	3,635	정보처리
한무·쇼핑	87년	1,634	3,405	백화점·소매
금강기획	83년	2,541	1,829	정보처리·광고

(출처) 최승노『1998년 30대 기업집단』, 『매일회사연감』 1998년판.

- 1 1997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규정에서 현대그룹은 57사로, 이 가운데 매상고 1500억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상장기업 20사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표시는 상장기업. △표시는 비상장기업으로 『감사보고서』에 의해 본고에서 분석한 기업.
- 2 강원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997년 대규모기업집단 규정에서는 계열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대 계열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높고, 1999년에 현대종합금융과 합병되었다.
- 3 영업수익.
- 4 98년 12월말에 고려산업개발에 합병.

<도표-1> 현대그룹 일족의 경영 참여 (1999년 3월말 현재)



(주) 직함은 1999년 3월말 현재. 실선이 현대그룹, 점선은 98년 이후에 현대그룹에서 독립한 그룹.  
그 외는 97년까지 현대그룹에서 독립한 그룹.

져 있다. 그룹 전체의 중요 경영사항의 조정은 종합기획실, 회장비서실 등에서 행해지며, 그 결정 사항은, 그룹회장하에 사장단회의를 통해서 의사전달되어 왔다. 이러한 틈 다운체제 아래서, 개별 산하기업의 이사회는 경영감시기능이라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주주총회의 독립적인 결정권이나 감사역의 역할도 크게 제약되어 왔다. 그 위에 그룹회장(총수)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책임 관계가 애매하고, 체크 기능이 극히 약하다고 하는 통치형태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 (3) 재벌과 은행의 관계

다음으로, 재벌과 은행의 관계를 살펴 보자. 한국에서는 자본시장이 미발달했기 때문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중심의 기업금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메인뱅크 제도로 보이는, 은행의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은 유효하게 작용하지 못했다.

재벌과 은행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은행 자체의 통치구조를 보기로 하자. 종래 한국의 은행에서는, 이사회가 은행장을 정점으로 하여 그 부하의 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왔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재벌은 도시은행의 주식소유를 4%이하로 제한당해, 재벌은 주주이면서도 이사선출권한을 빼앗겨 왔다. 은행장의 선출은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제도에서, 80년대에 경영자 선정위원회를 통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최종승인권을 은행감독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부임명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다<sup>13</sup>. 이러한 「관치금융」이라 불리는 제도에 의해, 정부는 은행장을 통해서 은행을 통제하고, 은행장은 은행 내에서 체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강한 권한을 가지며, 캐치 업 시기에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른 정책금융의 공급이라는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97년의 한보재벌의 파탄으로, 은행장이 뇌물에 얹힌 정치가의 압력에 의해 거액의 부정융자를 한 사태가 판명되면서, 은행의 통치구조 개혁이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sup>14</sup>.

이제까지, 한국기업은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른 정책금융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은행과의 관계보다도 정부와의 친밀한 관계에 의해 정책금융에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 은행도 스스로의 심사 능력으로 기업을 분석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금융의 조건에 합치하는지 아닌지를 사무적으로 판단하면서 융자를 계속해 왔다. 이렇듯이, 한국에는 「주거래은행」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일본의 메인뱅크처럼 주식의 보합과 임원파견 등에 의한 장기적 거래관계에 근거하여, 기업을 모니터하는 역할은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상으로 서술해 온 한국의 corporate governance를 일미독과 비교하면 <표6>과 같다. 재벌총수에 의한 그룹 전체의 지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통화위기 후의 1998년 이래로, IMF, OECD에 의해 비판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개혁을 하게 된 것이다.

## 2. corporate governance 개혁을 둘러싼 IMF, OECD, 한국정부의 입장

### (1) IMF와 OECD의 corporate governance 개혁 요구

IMF가 1997년 구제금융에 즈음하여, 특히 한국에 강하게 요구한 항목으로, corporate governance 개혁이 있었다. IMF는 구체적으로, 독립적인 외부감사제, 국제적 회계기준에 근거한 기업재무제표의 투명성 개선, 재벌 전체를 포함한 결합재무제표의 공개, 부채비율의 인하, 상호채무 보증제도의 변경등을 요구했다<sup>15</sup>.

또, OECD도 통화위기 후에, corporate governance 개혁의 권고안을 내었다. OECD의 권고안은,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를 토대로 한 미영식 기업통치모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OECD는 이 권고안에서, 이하 5대 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 <1> 주주의 권리보호
- <2> 소액주주나 외국인주주 등 모든 주주에 대한 동등대우
- <3> 채권자나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 <4> 투명한 정보제시: 기업의 재무상태나 성과, 소유권변동 등 중요사안의 정보를 완전공개할 것
- <5>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으로서,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과 책임강화를 강조: 이사회가 경영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회, 비집행이사회를 재무보고 등의 중요업무에 배치하도록 권고. 이사회가 기업전략과 목표설정, 업무집행과 감독, 임원선정과 감독, 부당내부거래 감시, 정보제시과정 감독 등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해야한다고 지적.

OECD는 이러한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1999년 5월 각료이사회에서 공식채택할 예정이다. 이 OECD의 corporate governance 개혁안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사회의 책임과 감독기능강화라고 하는 점에서는, 종래, 대주주(총수)의 결정을 승인하는 「거수기」 역할이라고 지탄된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에 의해, 한국형 「가족형경영」이나 「오너전횡」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 통화위기 후에 전체 이사수의 25%이상으로 확대된 사외이사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재정경제부는 유명무실한 사외이사의 역할을 규범규약에 포함시킬 예정으로, OECD권고안의 상당 부분은 이미 법제화가 준비되어 있으며, 새로운 규약제정으로 기업을 유도할 생각이다. OECD의 corporate governance 개혁안과 한국의 개혁 상황을 보면 <표7>과 같다.

한국기업의 corporate governance와 재벌의 구조개혁  
- 현대그룹의 개혁계획을 중심으로 -

<표 6> corporate governance 와 국제 비교 (한·일·미·독)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주식소유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주주에게 집중</li> <li>- 대규모 상호주주 보유</li> <li>- 소액주주, 기관주주의 비중이 증가 추세, 이는 단기 수익 중심의 투자 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대주주 부채</li> <li>- 계열 집단내 상호보합</li> <li>- 장기적 주식 보유, 안정 주주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범위한 주식 소유 분산</li> <li>- 자제 대주주 부채</li> <li>- 기관투자가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이 기업 주식 보유</li> <li>- 고객 예탁 주식에 대한 은행의 의결권 대리 행사</li> </ul>
지배구조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집단형의 조직 구조</li> <li>- 개인 대주주에 의한 자제권 집중</li> <li>- 상호출자를 통한 자제권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 집단 경영에 따른 「네트워크 자본주의」</li> <li>- 계열 기업간 상호 자제</li> <li>- 관한의 공유·분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자 지배</li> <li>- 의결권 대리 행사</li> <li>- 기관투자가 「침목의 동반자」로서 소극적 역할</li> <li>- 「강한 경영자·와한소유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지배에서 은행의 영향력이 강함</li> <li>- 이사회와 감사회의 이중 제도</li> <li>- 「감사회에 은행 임원 참가」</li> <li>- 소유·경영 분리</li> <li>- 주주대표는 감사회에만 참가</li> <li>- 노사 공동 의사결정 제도</li> </ul>
소유·경영분리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배 대주주 = 경영자</li> <li>- 기죽 소유, 자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경영 분리</li> <li>- 계열 해체 후 개인 대주주 소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경영자에 의한 기업 경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을 통한 경영 감시 규율(주주 M&amp;A)」</li> <li>- 종래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은 미약</li> <li>- 「자회사 규정(SEC, CPA)」</li> <li>- 「주주표决权을 통한 소액주주 대표의 의사 선임이 가능」</li> <li>- 최근, 최고 경영자를 해임하는 시례 발생</li> <li>- 「금융전업주의 (specialized banking)」</li> <li>- 「상업은행의 기업주식보유, 자제권 행사금지(은행법)」</li> </ul>
경영 감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시 기능 취약</li> <li>- 기본사장의 감시 기능 미숙</li> <li>- 은행의 역할은 불충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내 수평적 통제</li> <li>- 감시자로서의 메인뱅크</li> <li>- 기본시장 기능은 불충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을 통한 경영 감시 규율(주주 M&amp;A)」</li> <li>- 종래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은 미약</li> <li>- 「자회사 규정(SEC, CPA)」</li> <li>- 「주주표决权을 통한 소액주주 대표의 의사 선임이 가능」</li> <li>- 최근, 최고 경영자를 해임하는 시례 발생</li> <li>- 「금융전업주의 (specialized banking)」</li> <li>- 「상업은행의 기업주식보유, 자제권 행사금지(은행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에 의한 경영통제 (감사회 청탁)</li> <li>- 「자본시장 기능은 불충분」</li> <li>- M&amp;A 도입 초기</li> <li>- 「감사회와 이사회와의 이중제도」</li> <li>- 「감사회는 경영진의 선임, 해임, 경영전략 의결, 경영진 감시기능」</li> <li>- 「금융전업주의 (universal banking)」</li> <li>- 「은행의 기업주식 보유가 광범위(은행의 기업지배하의 주식지분이 24%수준)」</li> <li>- 「기업지배로 은행의 영향력이 강함」</li> <li>- 「긴밀한 제휴」</li> <li>- 「은행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큼」</li> </ul>
금융제도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전업제도 (은행·증권 분리)</li> <li>- 은행·산업의 분리 (소유 재한)</li> <li>- 은행의 기업주식 보유를 제한적 허용</li> <li>- 외설권 행사 금지, 회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전업제도</li> <li>- 은행·산업 분리주의</li> <li>- 은행의 기업 주식소유를 5% 이내로 제한적 학용 (77년 독금법)</li> <li>- 외설권 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인뱅크 제도」</li> <li>- 「주식보유에 의한 판매 형성」</li> <li>- 「은행이 기업의 장기 안정주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판매」</li> <li>- 「시장원리에 의존해서 risk-return에 입각한 대비」</li> <li>- 「장기 결속 판매 결여」</li> </ul>
은행-기업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판매</li> <li>- 자본적 결합은 약화</li> <li>- 정책금융 배급 창구</li> <li>- 은행은 여전 관리 감독 기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lass - Steagall 법 제정을 통해 은행-기업간의 재융자」</li> <li>- 「기업통합을 통한 계열 집단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lass - Steagall 법 제정을 통해 은행-기업간의 재융자」</li> <li>- 「클레이튼법에 의해 기업의 태사주식 소유를 규제」</li> <li>- 「M&amp;A 시장 활성화」</li> <li>- 「시장을 통한 경영자 규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주식의 금융제도의 도입」</li> <li>- 「산업화 과정에서 은행이 기업의 자금 공급자의 역할을 부담」</li> <li>- 「기업구조 차원에서의 부채의 주식 전환」</li> <li>- 「감사회와 이사회의 이중제도의 채택」</li> </ul>
기업 소유 자제 구조의 형성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간의 급박한 기업 성장</li> <li>- 창업자 일족을 중심으로 한 경영</li> <li>- 은행차입 중심의 기업금융으로 주식에 의한 자금 조달 불충분</li> <li>- 기업 이해관계자총의 단순화</li> <li>- 경부-기업간에 주인-대리인 관계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년대 초까지는 메인뱅크, 계열 기업 집단에 궁정적 평가」</li> <li>- 「자본시장 미벌달」</li> <li>- 「만 경쟁적 계열 조직에 대한 비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업적주의 중심의 근시 인적 경영」</li> <li>- 「경영자 지배, 기업관료주의」</li> <li>- 「대외인 감시 비용의 증대」</li> <li>- 「산업구조 재편에 있어서 M&amp;A 시장의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wer of bank」에 대한 복합적 평가</li> <li>- 「은행의 리스크 회피 경향에 따른 과감한 투자위축의 우려」</li> <li>- 「자본시장 발달 저해」</li> </ul>
기업 소유 자제 구조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인 (책임)있는 경영」</li> <li>- 「과감한 의사 결정」</li> <li>-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li> <li>- 경제적 집중을 초래</li> <li>- 경제, 기업민주주의 문제</li> <li>- 기업 감시체계가 미비</li> <li>- 혁신적, 장기적 시야의 경영을 하는 기업금융 체계가 미화됨</li> <li>- 경영권의 세습</li> <li>- 「소유분산」, 「소유·경영분리」 촉진</li> <li>- 대기업 집단의 변화 노력 (사이이사의 도입, 분권 경영체계 등)</li> <li>- M&amp;A 시장 활동</li> <li>- 금융 자율화, 개방화, 경업 주의로의 부분적 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보합 관계의 완화」</li> <li>- 「자본회사의 하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li> <li>- 「M&amp;A 시장 등 자본시장 기능 향상」</li> <li>- 「계열 집단 규제를 위한 미국의 입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력에 있어서 기업소유 자제 구조의 중요성 인식」</li> <li>- 「기업집단, 은행-기업관계의 장점을 인식」</li> <li>- 「Glass - Steagall 법의 개정을 통해 경영주의제도로 이행」</li> <li>-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부채(은행)의 기능증대 경향」</li> <li>- 「기관 투자가 등의 "Shareholder Activism"의 가능성」</li> <li>- 「장래, 연금기금의 성장에 따라, "연금기금 자본주의", 또는, "근로자 자본주의" 시대 도래 예고 (Drucke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의 주식보유를 제한하는 움직임」</li> <li>- 「독점 위원회」</li> <li>- 「EU Directive」</li> <li>- 「자본시장, M&amp;A 시장의 비중 증대」</li> </ul>
정책과제, 현상, 전망				

(출처) 李承琪, 「글로벌 경쟁사례의 한국 기업 소유 자제 구조」, 한국개발연구원, 1996년, 206~208페이지를 참고로 작성

<표 7> OECD 의 corporate governance 개혁안과 한국의 현상

	OECD 권고안	1998년 이후의 한국의 변화
이사회의 임무와 책임	이사회의 기업경영 혁신기능 수행 의무 충분한 수의 비집행 이사배치 이사회 신의 성실 의무	사외 이시제 강화 사외 이사수를 전체의 25% 이상
정보공개와 투명성	완전한 정보 공개 독립적 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외부 감사제 강화	예측정보 공개제도 99.4 도입 독립 회계 기준의 제정 추진
주주권리 보호	특정 주주의 과도한 차별권 공개 M&A 시장의 공정·투명성 의결권 행사 보증	적대적 M&A 허용 직간접 의결권 행사가 가능
주주 동등 대우	주주의 동등한 의결권 자기거래와 내부자 거래 금지	1 주 1 표 원칙, 소수 주주권 강화, 금융 감독원 규제
이해관계자의 역할	권리 존중 이해관계자의 경영 참여와 정보 접근	소비자 보호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보증

(출처) 『한국경제신문』 1999년 2월 19일

## (2) 한국정부의 corporate governance 개혁 방향

IMF와 OECD가 corporate governance 개혁을 강하게 요구한 것을 받아 들여, 한국정부는 재벌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sup>17</sup>. 재정경제부는 1999년 1월, OECD의 권고안에 따라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리보호는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규범규약」을 상반기 중에 작성할 방침을 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3월에 발족시켰다<sup>18</sup>.

그 위에, 같은 해 3월 3일에는, 서울에서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회의가,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동주최로 열렸다<sup>19</sup>. 이 국제회의에서는, 기업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서 투명성과 정보제시제도를 국제적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금융위기를 막는데 필수라는 인식이 보였다. OECD는, 앞에서 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섯개의 원칙을 보이고, 이러한 기업지배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것이 아시아 통화위기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주와 대출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을 감시하는 체제가 약해서, 소수의 이해집단이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스틸폰, 네스터 OECD 금융재정담당은 「국제 금융시장과 실질경제시장이 하나로 근접해 가면서, 기업지배구조도 하나의 패턴으로 수렴되는 추세이다」라고 주장했다. KDI의 연구원은 기업과 금융 2종류 부문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은행이나 민영화 대상의 공기업에 대해서 재벌의 소유를 허가하는 것은 새로운 불량채권이나 경영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OECD와 KDI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이처럼, OECD와 한국정부의 corporate governance 개혁법안은 기본적으로 앵

글로 색슨형의 shareholder capitalism을 기본모델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부 일본이나 독일의 요소를 도입하려는 부분도 보인다. 먼저, 이해관계자(stakeholders)로서의 은행의 역할을 높이는 방책을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99년 3월의 국제회의에서, KDI의 연구원은 경영부진기업의 정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부채를 출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금융기관의 채무출자전환에 의해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은행의 기업감시능력을 높이는 정책은, 이미 상위6위 이하의 재벌의 워크 아웃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치이다<sup>20</sup>. 한국의 재벌 연구자인 김기원은, 이 조치에 의해 재벌의 소유구조가 내부소유에서 금융기관의 소유로 크게 변화한다는 점에서, 총수의 독점적 지배력을 개혁할 수 있는 유력한 조치라고 주목하고 있다<sup>21</sup>.

다음으로, OECD는 「이해관계자의 역할 증대」의 한 예로, 종업원지주제도의 확충과, 노동자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지적하고 있다. 노동문제 연구자 김형기는, 이와 관련해, 사외이사회를 통해 노조추천, 노사협의회 추천의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등의 독일형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를 받아 들이는 것으로, 김대중 정권이 실시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와 병행해서, 개혁을 향한 사회적 합의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2</sup>.

이와같이, 한국정부는 OECD등의 권고를 받으며, corporate governance(기업통치) 개혁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으며, 특히 중하위재벌에서 이 방향을 향한 진전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경제력이 강한 상위재벌은, 이 개혁에 어떻게 대응하려 하고 있는 것일까. 현대그룹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하자.

### 3. 현대그룹의 구조개혁

IMF와 김대중정권은, 재벌개혁에 관해, 앞에서 말한 (1)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corporate governance 개혁문제 뿐 아니라, (2)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을 저하시키고, 19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한다는 원칙하에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 (3)비밀(대규모 사업교환) 등을 통한 상위재벌의 과잉다각화, 과잉투자의 해소, 등을 동시에 진전시켜 왔다<sup>23</sup>. 재벌에 대한 개혁 요구가 더해가는 가운데, 한국의 상위재벌은 이들 개혁과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는 현대그룹의 이러한 과제에 대한 개혁계획을 보기로 하자.

현대그룹은 1998년 말부터 구조개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99년 1월 8일, 박세용, 구조조정본부장이 현대그룹의 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했다<sup>24</sup>. 그것에 의하면, 99년 중에 자산 1조원 이상의 18계열사 가운데 3~4사를 포함하여, 11사를 매각하고, 2005년까지 5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분리, 독립시켜, 그룹 전체를 「완전해체」 한다는 계획이었다. 현대는 98년 11월에, 파탄한 기아자동차, 아세아자동차를 낙찰했는데, 그 위에 2001년에 자동차 부문을 독립시키고, 계속해서

현대전자(LG반도체를 흡수할 예정)를 중심으로 한 전자 부문, 현대 중공업, 인천 제철, 현대정유를 중심으로 한 중화학 부문,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 부문, 국내 1위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금융, 서비스 부문(강원은행과 현대종합금융 회사가 합병, 그 위에 조흥은행과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있다)의 4주력업종도 2005년까지 점차 그룹에서 분리하여 소그룹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5업종을 각각 세계 10위권에 올려 넣는다는 것을 목표로, 한편으로는 빅딜 추진중의 현대석유화학, 항공, 철도차량, 발전설비에서는 주식을 매각, 철퇴한다고 했다. 현대정유는 LG반도체와의 보상 빅딜안도 부상되었는데, 한화에너지의 흡수교섭도 진행되고 있고, 주력기업으로서 육성, 민영화를 동반한 포항제철 흡수의 전초 기지인 인천제철도, 이 시점에서는 주력업종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이들 구조개혁을 위한 필요자금은, 금융기관 차입을 피해, 외자유치를 98년의 51억 달러에 이어 99년에도 54억 정도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999년 1월에 현대가 5그룹 분할계획을 발표한 뒤,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항례의 30대기업집단의 재무내용을 공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5대재벌 가운데 삼성, LG, SK의 부채는 감소했지만, 현대와 대우에서는 98년말의 부채가 전년보다 10조원, 17조원 증가한 것이 밝혀졌다. 또, 98년말에 5대재벌이 주체권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규정 99년 제1사반기분의 실적 점검에서, 현대와 대우의 실적이 극히 저조했기 때문에, 4월에 채권은행이 양 재벌에 「이행권고」를 내고, 대통령과 정부고관도 제재의 움직임을 보이며 압력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압력을 받고, 현대그룹은 4월 하순에 다시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99년중에 현대정유의 해외매각 등으로 53사를 계열에서 분리시키고, 그룹을 26사로 축소, 2000년에 자동차 부문을 독립시키며, 전자, 중공업, 건설, 금융의 4주력업종도 2003년에 그룹에서 분리해서, 현대그룹의 5분할 계획을 2년 앞당긴다는 내용이다<sup>25</sup>.

현대그룹은 통화위기 후의 재계재편의 과정에서, 기아자동차, LG반도체 등 타사흡수가 가장 많아 「혼자 살아남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 가운데 등장한 「현대그룹분할안」은, 그동안 확장경향이 현저하던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의미도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1998년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정주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차남, 정몽구(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의 회장), 오남, 정몽헌(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의 회장)을 비롯한 아들들에게 자산을 분할하고, 독립 경영을 실시하는 소그룹에 의한 후속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다. 이 세대교체와 관련해, 뒤에서 지적하겠지만, 98년부터 계열사간에 대대적인 주식소유의 이동이 실시되어,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의혹까지 부상되고 있다. 다음으로, 98년말부터 전전되어 온 이세(二世)로의 후속체제구축의 움직임을 보기로 하자.

## (1) 정몽구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문의 재편

현대자동차는 1970년대에 국산 고유모델, 포니를 개발한 이래, 한국자동차 산업의 리딩 메이커이며, 현대그룹의 중핵기업 중 하나이다. <도표1>로 알 수 있듯, 그룹 창업자인 정주영이 60년대부터 70년대에 현대건설, 현대중공업의 회장으로 있던 중에, 현대자동차에서는 창업자의 동생, 정세영이, 67년 2월 설립이래 87년 1월까지 사장, 87년 1월부터 96년 1월까지 회장을 맡아왔다. 96년 1월에 정세영은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이 되고, 동시에 그 장남, 정몽규가 현대자동차 회장에 취임했다<sup>26</sup>. 전술한 듯이, 현대그룹 전체의 투자계획등 중요계획은, 종합기획실을 통해서 정주영 총수의 재가하에 진척되어 왔지만, 일상의 경영책임은 정세영, 정몽규가 담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98년 11월, 현대의 기아자동차, 아세아자동차 낙찰에 이어서, 12월 3일, 현대그룹 자동차 부문의 신경영진과 경영방침이 발표되었다<sup>27</sup>. 먼저, 정몽구 그룹회장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회장에 선임되었다. 이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의향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장자우선」의 원칙에 의해 후속체제가 정비되었다고 보인다. 정세영,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사회장에, 그 장남, 정몽규, 현대자동차 회장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부회장에 일단 선임되었지만, 99년 3월에 두 사람 모두 그만두고, 후술하게 되듯이 현대산업개발의 경영으로 이동한다. 정세영, 몽규는 기아자동차의 흡수에 부정적이어서, 기아 낙찰을 통해 진두지휘한 정몽구와의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겼다고도 전해져, 결국 정주영 명예회장의 의향으로 정몽구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사업 통괄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그룹의 자동차 부문을 당분간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2사체제로 하여, 현대자동차가 99년중에 현대자동차 서비스와 현대정공의 자동차 부문을 흡수하고, 기아는 아세아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판매, 아세아자동차 판매, 대전자동차를 합병할 계획이다<sup>28</sup>.

이렇게, 기아를 흡수해서 거대화한 현대의 자동차 부문을 정몽구가 통괄하는 체제가 정비되었다. 또 기아자동차 등의 흡수로 비대화한 자동차 부문 전체의 정비를 위해, 정몽구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사장,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부문 기획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있다.

이 현대자동차 경영진 교체와 함께, 정세영, 정몽규 부자는 자동차 부문을 떠나, 현대산업개발(주택건설)의 주식, 경영권을 쥐고 분가하게 되었다. 3월 2일에 현대그룹 회장단 회의(친족회의로도 불린다)에서, 정세영은 현대자동차의 경영에서 은퇴할 것이 결정되어, 현대산업개발을 위양하게 되었다<sup>29</sup>. 정세영과 정몽규의 현대자동차 소유주식과 정주영, 정몽구, 계열사가 소유하는 현대산업개발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분가가 진행되어, 3월 5일 주식시장에서 정세영, 정몽규는 현대자동차의 지주 8.33%(시가700억원정도)를 매각하고, 현대산업개발주식의 16.23%, 18.02%를 구입, 8일에는 정세영이 동사의 명예회장, 정몽규가 동회장으로 선임되었다<sup>30</sup>. 한국 유수의 패션 공급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은, 99년 7월에도 현대그

룹으로부터 계열분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내분의 쪽을 자르기 위해, 정세영 부자의 현대자동차로부터의 은퇴와 소유주식교환, 현대산업개발의 신체제 발족은 단숨에 진행되었다. 게다가, 정세영 부자의 분가에 따라, 정세영과 가까운 이방주 현대자동차 사장이 현대산업개발 사장이 되는 등 많은 현대자동차 임원이 현대산업개발로 이동하고, 한편으로 현대자동차 임원에는 정몽구와 가까운 현대정공이나 현대산업개발의 이전 임원이 등용되었다.

그러나, 정세영, 정몽규가 경영권을 쥐고, 현대그룹에서 분리한 현대산업개발은, 현대그룹 산하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그것을 매각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과제가 되었다. 현대산업개발이 99년 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1) 고려산업개발: 21.18%(900만주), (2)현대엔지니어링: 42.82%(380만주), (3)인천제철: 15.11%(660만주)이고, 이 모든 주식을 곧 정몽구 그룹회장 등에게 양도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고려산업개발의 소유구조는, 현대산업개발이 21.18%, 현대건설이 18%, 정주영이 5%이다. 이 3사의 주식매각에 의해, 정몽구는 고려산업개발, 인천제철의 소유비율을 높이고, 또 현대엔지니어링은 99년 4월에 현대건설과 합병할 예정이어서, 3사 모두 현대그룹 산하에 잔존할 예정이다.

## (2) 정몽헌을 중심으로 한 건설, 전자 부문

1998년에 정몽구에 이어 두번째 현대그룹 회장이 된 오남, 정몽헌은, 현대건설, 현대전자, 현대종합상사, 현대상선, 현대엘리베리터의 대주주임과 동시에 회장으로, 이들 사업을 통괄하고 있다. 정부의 강한 요청을 받아 진전된 베딜(대규모 사업교환)의 일환으로, 반도체 부분에서는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통합될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 통합 후의 경영주체를 둘러싼 양 사의 각축이 있었으나, 99년 1월 6일에 LG반도체는, 자사의 주식을 모두 현대측에 매각해, 반도체사업에서 철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대전자는 반도체의 DRAM생산에서는 세계 정상의 삼성전자에 필적하는 생산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또, 정주영 명예회장이 「만년 최후의 사업」으로서 심혈을 기울이는 남북경제 협력사업을 추진할 기업으로, 현대아산이 1999년 3월에 설립되었는데, 정몽헌이 회장이 되어 남북경제교류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다. 또 정몽헌은, 현대증권, 현대투자신탁증권이라는 금융주력사도 장악하고 있다.

## (3) 정몽근, 정몽윤의 그룹으로부터의 독립

현대백화점, 현대호텔을 경영하는 금강개발산업은, 1999년 4월 1일, 삼남, 정몽근의 통괄 체제하에서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했다. 동사의 출자가 많은, 한무쇼핑, 현대쇼핑, 한국물류, 울산방송, 주리온도 함께 계열에서 분리, 금강개발산업을 중심으로 유통서비스 부문의 소그룹에서 독자경영을 실시하는 방향이다. 계열 분리에 의해, 그룹의 슬림화가 기대됨과 동시에,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금강개발

산업은, 30대 기업집단지정에서 제외되어, 동일인여신한도제한과 부당내부거래의 집중 조사라고 하는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있다<sup>31</sup>.

또, 칠남, 정동윤이 회장으로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도, 1999년 1월 2일에 그룹으로부터의 분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가되었다.

이렇게 <도표1>에서 보이듯이, 정주영 일족에 의한 현대그룹의 경영 지배에서 정세영, 정몽규, 정몽근, 정몽윤이 분리 독립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현대 산하기업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4) 정몽일과 금융부문

팔남, 정몽일은 현대종합금융의 고문으로, 현대파이낸스, 현대할부금융 등 금융회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금융부문에서는, (1)99년 2월에 현대종합금융이 강원은행에 흡수합병된 것에 이어, 같은 해 7월에 강원은행이 조흥은행에 합병될 예정이고, (2)99년 2월에 한국생명을 흡수해서 현대생명보험을 발족시킨 뒤, 파탄한 신동아그룹의 대한생명 흡수를 둘러싸고 외자, 주요재벌과 경쟁하는 등, 앞으로도 큰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1997년 말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이 5.37%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강원은행(지방은행)은 99년 2월에 현대종합금융과 합병되고, 다시 조흥은행과의 합병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합병교섭으로 현대축은 도시은행인 조흥은행의 6~7%의 주식소유를 요구하여 도시은행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기도했지만, 현행은행법에서는 도시은행의 법인주식 소유는 4%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큰 제약이 되었다. 금융위기에 의한 경영위기에 빠진 많은 한국 도시은행에서는 자금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공적자금 주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부소유비율을 높인 정부당국은, 출자자 찾기에 난항을 겪어, 한 때 상기의 법인주식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재벌의 은행출자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검토되었다. 그러나 IMF등 국제기관에 의한 재벌개혁의 강한 압력을 받아, 이 소유제한은 유지되었기 때문에, 현대는 조흥은행의 4%이내의 소유가 되도록 합병비율을 결정했다<sup>32</sup>.

### 4. 현대그룹의 소그룹화, 계열 분리에 따른 주식소유구조의 변화

지금까지 보아 온 현대그룹의 분가와 소그룹화로의 동향과 함께, 1998년 말경부터 현대그룹 산하기업의 주식 소유구조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첫째로, 계열기업이 정몽구를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 정몽헌을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 현대중공업(현재도 정주영이 17.7%로 최대주주)을 최대 소유주로 하는 그룹으로의 분기가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로, 정세영, 정몽규나 정몽근 등의 분가에 따라 그들에게 소유가 집중된 것이다<sup>33</sup>.

먼저, 정몽구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화의 움직임을 보자. <도표1>에서 보인대로, 정몽구는 인천제철, 현대정공, 자동차서비스, 현대강관, 고려산업개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대표이사회장을 맡고 있고, 이들 기업에서 정몽구, 동일 소그룹에 의한 소유가 전전되고 있다. <표8>과 같이, 현대자동차에서는 정세영, 정몽규의 지주가 매각되고, 반면에, 정몽구와 현대정공 등 같은 소그룹에 의한 소유가 확대되고 있다. 정세영, 정몽규가 경영을 맡게 된 현대산업개발은 현대자동차주를 97년 말에 1.1%소유하고 있었으나, 99년 4월 1일에 매각하여 소유비율이 0.13%까지 저하되어 있다. 인천제철과 현대정공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산하기업의 주를 소유해 온 준지주회사적 존재였던 현대중공업의 지주가 없어지고, 정몽구와 그 소그룹기업에 의한 소유가 확대되어 있다<sup>34</sup>. 현대정공은 99년 3월의 증자에 즈음해서, 정몽구와 인천제철이 소유주식, 출자비율을 높였다. 현대강관에서는, 98년 12월의 증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현대중공업과 정몽준계열의 현대건설의 지주가 확대되고, 정몽구와 현대정공에 의한 소유주식수는 변하지는 않았지만 소유비율이 저하되었다. 98년 12월에 현대리바트를 흡수하여 재무상황이 악화된 고려산업개발도, 98년 말의 증자를 많은 산하기업이 인수해, 발행주식의 87.68%를 계열사가 소유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들 정몽구 계열 소그룹은, 현대중공업 등에 의한 소유기관을 청산하고, 소유관계를 소그룹내에 한정시킬 움직임을 보여, 2000년 자동차 부문의 계열분리를 향한 준비가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몽현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에서는, 현대전자, 현대종합상사, 현대상선, 현대증권에서 현대자동차, 현대강관 등의 정몽구 계열사의 소유주가 매각되었다(표9 참조). 현대상선에서는 정몽구 계열인 현대강관의 소유가 0으로 되어, 몽현 계열인 현대건설의 소유비율이 높아지고, 정몽구 계열이 분리준비가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전자, 현대종합상사에서 현대중공업의 소유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자금력에 여유가 있고, 정 명예회장이 「그룹의 돈줄」이라고 부르는<sup>35</sup> 현대중공업이, LG반도체의 흡수 등으로 자금수요가 왕성한 현대전자의 주식을 시장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것이다. 그러나, 98년의 현대전자주 급상승과 관련해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이 부당하게 주가를 올린 혐의로 양 사의 회장이 고발되는 사태도 발생했다<sup>36</sup>.

<표10>으로 알 수 있듯, 현대중공업에서는, 정주영이 17.68%로 최대주주이고, 종업원지주회도 포함하면 내부소유비율은 52.18%가 된다. 총수의 육남, 정몽준은 현대중공업의 고문으로 11.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으로서 업무에 힘을 할애하고 있어, 경영일선에서 멀어져 있다. 종래 준지주회사적인 역할을 해 온 현대중공업은, 지금도 현대미포조선의 36.43%, 현대석유화학의 39%, 현대정유의 22.51%, 현대정유판매의 62.2%, 강원은행의 30.84%를 소유해, 최대주주로 되어 있다.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에서는 정

<표 8> 정몽구 계열 소그룹 기업에서의 주식소유의 변동

(단위 : %)

현대자동차 (97 말→99.3)	현대자동차서비스 (96 말→97 말→99.3)	인천제철 (97 말→99.3)
현대중공업 9.27→9.63	정몽구 4.90→9.56→9.56	현대중공업 22.20→0
현대건설 3.40→3.56	현대자동차 0→0→8.71	현대산업개발 0→15.11
현대정공 0→4.68	인천제철 1.13→1.13→1.13	정몽구 0→12.11
정몽구 0→8.76	현대정공 8.71→8.71→0	현대지동차 7.82→7.82
정세영 + 정몽규 4.0→0.0		현대전자 7.82→7.82
三菱상사 + 三菱자동차 9.32→9.32 (96년말과 97년말은 동일)		정주영 2.33→0.83
		현대종합상사 1.17→1.17 (96년말과 97년말은 거의 불변)
현대정공 (96 말→97 말→99.3)	현대강관 (96 말→97 말→99.3)	고려산업개발 (96 말→97 말→99.3)
현대중공업 12.09→11.41→0	현대정공 12.59→12.59→4.2	현대산업개발 21.94→21.94→20.31
인천제철 7.33→6.91→21.55	정몽구회장 5.53→5.53→1.84	현대중공업 2.19→2.19→10.21
정몽구 4.42→8.71→8.25	현대건설 0→0→22.22	현대정유 0→0→10.21
정몽규 1.02→0.81→0.17	현대중공업 0→0→13.33	현대지동차 0→0→9.8
	현대산업개발 0→0→22.81	현대지동차서비스 0→0→6.79
		현대건설 17.95→17.95→5.4
		현대상선 0→0→5.09
		인천제철 0→0→5.09

(출처) 각사의 사업 보고서, 증권 거래소의 자본 공시

<표 9> 정몽현 계열 소그룹 기업에서의 주식 소유의 변동

(단위 : %)

현대건설 (96 말→97 말→99.3)	현대전자 (96 말→97 말→99.3)	현대종합상사 (96 말→97 말→99.3)
정몽현회장 0.59→5.09→4.68	현대중공업 2.22→2.22→21.94	현대중공업 5.53→5.30→9.52
이신재단 5.87→5.87→2.41	현대상선 19.78→19.78→20.65	정몽현 회장 0.01→0.01→7.26
정주영 명예회장 2.34→2.34→1.96	현대건설 20.89→20.89→0.52	현대자동차 6.93→6.60→5.9
인천제철 1.40→1.40→1.43	정몽현 14.11→10.96→3.51	현대지동차서비스 1.35→1.28→1.58
현대종합상사 0.35→0.35→1.36	현대자동차 8.04→8.04→0	
현대자동차서비스 1.04→1.04→1.33	현대 엘리베이터 3.93→3.93→1.9	
	현대정공 5.71→5.71→0	
현대상선 (96 말→97 말→99.3)	현대엘리베이터 (96 말→97 말→99.3)	현대중권 (97.3 말→98.3 말→99.3)
정몽현 18.41→18.41→12.84	정몽현 22.04→21.23→9.42	현대상선 1.49→5.00→17.47
정주영 16.82→16.82→3.65	현대상선 7.40→7.13→8.35	현대중공업 3.05→6.52→6.52
현대건설 0.05→0.05→8.97	현대종합상사 0→7.51→5.62	한소해운 0→1.82→1.82
금강개발산업 7.16→2.99→2.61	현대중공업 0→4.25→2.27	현대지동차 13.76→12.18→0 (3월말 결산)
현대강관 10.42→10.42→0		
고려산업개발 4.77→4.77→0		

(출처) <표 8> 과 같음.

<표 10> 현대그룹 상장기업·주요기업의 소유구조 (1999년 3월말 현재)

소유자 비소유자	정주영	정몽구	정동현	현대 중공업	현대 자동차	현대자동 차서비스	인천 제철	현대 정공	현대건설
현대중공업(1)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현대지동차서비스 인천제철 현대정공 고려신입개발 현대강관 현대건설 현대전자 현대중합상사 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엘리베이터 대한일류미남 현대석유화학(1) 현대정유(1) 현대정유판매(1)	17.68 0.13 0.13 0.83 0.91→0 1.96 14.42→3.65 12	1.89 0→3.76 9.56 12.11 8.25 1.84 0.09 13.4		36.43 9.63 8.71 7.82 10.21 13.33 4.68 3.51 7.26 9.52 12.84 6.52 2.27 3.4 39 22.51 62.2			1.13 21.55 5.09 1.7 4.2 1.45 0 1.58 0.75 5.9 11.51 1.7 5.1 5.51		10.37 3.56 5.4 22.22 8.76→0.52 8.97 4.84
소유자 비소유자	현대 종합상사	현대상선	현대 신입개발	내부 소유계(2)	그 외				
현대중공업(1)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현대지동차서비스 인천제철 현대정공 고려신입개발 현대강관 현대건설 현대전자 현대중합상사 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엘리베이터 대한일류미남 현대석유화학(1) 현대정유(1) 현대정유판매(1)				41.73 38.33 25.12 19.4 45.51 31.41 85.32 65.25 13.37 50.93 27.57 29.98 26.86 25.99 87.25 51.0 66.3 62.2	종업원 자주화가 10.45%, 정몽준이 11.7% 川崎중공업이 4.01% 三菱상사, 三菱자동차가 9.32% 현대전자가 7.82% 현대정유가 10.19% 이산 제단 2.41% 현대 엘리베이터가 2.61% 금강신입개발이 2.61% 한소해운 1.82% 현대정유가 12.91%, 현대전자가 7.71% 등 Amalgamated Technologies Plc 37.8%				

(주 1) 비상장기업으로, 「감사보고서」에 의한 97년말의 수치. →는 1999년초부터 3월말까지의 주요 변화.

(주 2) 자지주 소유분을 포함.

(출처) 한국증권거래소 「자본공시」 1999년 4월 5일 23일

봉혁이 사장을 맡고 있다. 정주영이 동생 가운데 가장 애정을 쏟고 있었으나, 21세에 독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신영의 남겨진 아들이 정봉혁인데, 그의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주식소유는 적고, 소유면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정주영이 지배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서는 여전히 현대중공업이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세영, 정봉규와 정봉근 등의 분가에 따라, 각각의 계열기업에서 그들에 계로 소유가 집중되고 있다. <표11>처럼, 현대산업개발은 1997년 말에, 최대주주는 현대건설로 31.02%, 이어서 당시 회장인 정봉구가 9.89%, 정주영이 3.85%였는데, 99년 3월 말에는, 회장이 된 정봉규가 최대주주로 10.86%, 다음이 그 아버지인 정세영이 9.78%로, 분가에 따른 주식 이동을 뒷받침하고 있다<sup>37</sup>. 또, 99년 3월 말에, 금강개발산업에서는 정봉근이 24.31%,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는 정봉윤이 21.67% 소유하고 있어, 계열분리에 따른 소유의 일원화가 진행되었다.

## 5. 현대그룹의 개혁계획과 재벌개혁의 과제

앞에서 재벌의 개혁과제로써, (1)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corporate governance개혁, (2)부채비율의 저하 등 재무구조의 개선, (3)상위 재벌의 과잉다각화, 과잉투자의 해소,라는 3가지를 지적했다. 지금까지 보아 온 현대그룹의 개혁 계획은, 이 재벌개혁 과제를 어느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1999년 4월의 개혁안에서 보인, 99년 말까지의 53사 계열분리와 그룹의 26사로의 축소, 2003년까지의 5소그룹으로의 분할계획은 상기한 제2, 3의 과제에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53사의 계열분리 안에는 현대정유 등 여러 회사의 해외 매각이 포함되어 있으나, 매각은 상대측과의 교환 문제가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지 미지수의 부분이 많다. 그러나, 계획이 거의 실현되어, 수년 후에 소그룹으로 완전히 분할되면, 과잉다각화의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대의 문제는, 첫번째의 기업통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소유구조 분석으로 보았듯이, 그룹 산하기업에서는 여전히 총수일족과 계열기업에 의한 내부 소유가 큰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5소그룹으로의 분할이나 계열분리가 진행되어도, 특정 대주주가 지배하는 소그룹이 복수로 생기는 것에 지나지 않을 우려도 있다.

1999년부터 금융계에서는, 사외이사의 대폭적인 등용에 의한 corporate governance 개혁의 전환이 보였지만, 상위재벌에서는 사외이사나 감사는 형식적으로, 거의 총수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99년 말까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실시할 방침을 보였다<sup>38</sup>. 그러나, 이제까지의 감사선출과 기능을 보는 한, 상위재벌에서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밖에 없다<sup>39</sup>.

<표 11> 현대그룹 상장기업·주요기업의 소유구조 (제 2)

( 1999 년 3 월말 현재 )

소유자 비소유자	정동규	정세영	정주영	정동근	정동윤	정동일	현대 증공업
소유자 비소유자	현대 자동차	현대 정 공	현 대 건설	현 대 전자	현 대 산업개발	현 대 캐피탈	내 부 소유계
현대산업개발 금강기발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강원은행 현대종합금융	10.86	9.78	2.09	24.31	21.67	3.31 3.36	30.84
현대산업개발 금강기발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강원은행 현대종합금융	7.84			2.77			34.07 29.86 28.46
	6.71		6.09		4.05	9.55	69.92
	6.8		6.18		4.1	9.68	39.55

(출처) 한국증권거래소 「자본공시」 1999년 4월 5일 23일 현재

IMF에서 까다로운 응자조건이 요구되고, IMF스텝이 「재벌해체」를 주장했을 때, 일본에서 전후 GHQ에 의해서 재벌이 해체되었듯이, 한국에서도 IMF에 의해 재벌이 해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부상되었다. 그러나, 전후 GHQ가 재벌의 소유문제에까지 관여한 것에 대해, IMF와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있다. 한국 대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corporate governance 확립을 위해서는, 상위재벌의 소유문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季〉

1. 深尾光洋・森田泰子, 『기업 governance 구조의 국제 비교』 일본경제신문사, 1997년.  
深尾光洋『corporate governance입문』 치쿠마 신서, 1999년. 커티스·J·밀하우프트  
『corporate governance의 다양화와 수렴화』 青木昌彦・奥野(藤原)正寛・岡崎哲二편  
『시장의 역할 국가의 역할』 동양경제신문사, 1999년. 奥村宏「한국의 기업 시스템과  
일본의 기업 시스템」大津定美편『경제시스템과 기업구조』 미네르바書房, 1990년. 大塚  
晴之『corporate governance와 기업금융』千倉書房, 1998년.
  2. 李永琪『글로벌 경쟁시대의 한국기업 소유지배구조』 한국개발연구원, 1996년. 金龍烈  
『IMF체제 이후의 기업지배제도의 전개방향—한국과 일본의 제도개선 논의를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서울), 1998년 등, 참조.
  3. 深尾光洋・森田泰子, 전계서, 38~44페이지.
  4. 李永琪, 전계서, 88페이지.
  5. 金龍烈, 전계서, 40페이지. 또, 졸고「IMF체제와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甲南經濟  
論集』 제39권 제4호, 1998년12월, 83페이지 참조.
  6. 여기서는 재벌그룹 전체의 실질적인 통괄자를 축수라고 한다. 많은 재벌에서는 그룹회

장이 총수이지만, 현대그룹에서는 뒤에서 보게 되듯이, 정주영 명예회장이 실질적인 통괄자이며, 총수이다.

7. 李永琪, 전계서, 88페이지. 金龍烈, 전계서, 41페이지.
8. 「매일경제신문」 1998년3월6일.
9. 「현대오십년사 上」 1997년, 1086~1087페이지.
10. 1998년 1월의 정몽헌 그룹부회장의 회장 승격은, 정주영 총수에 의해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 당시 그룹회장이었던 정몽구는 발표 당일에 처음으로 이 보고를 들었다고 한다. 이것으로도, 현대그룹의 최고결정자가 누구인지는 명백할 것이다. 「조선일보」 1998년 1월14일. 金東運「한국재벌의 지배구조」 金大煥·金均편『한국재벌개혁론』 나남, 1999년, 68페이지.  
뒤에서 서술하게 되듯이, 정주영의 동생인 정세영이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을 사임하고, 그 장남인 정몽규와 함께 현대산업개발의 경영을 맡고 분가하기로 결정되었을 때와, 1999년 4월에 LG반도체 주식의 현대전자에 대한 매각가격으로 합의되었을 때도, 최종적으로는 「왕회장」이라고 불리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결단이었다고 한다. 「매일경제신문」 1999년 3월6일, 4월13일. 金基元은, 이렇게 절대적 권한을 가진 재벌총수를 점점으로 한 체제를 전근대적인 「王朝적 독재체제」라 부르고, 그 극복을 요구하고 있다. 金基元「IMF사태 이후 재벌의 구조정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제6회 심포지엄 「IMF관리후 1년간의 경제정책」 1999년2월5일.
11. 한국의 상속관계는, 장자단독상속이 아니라, 장자우대 불균등상속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服部民夫편『한국의 공업화…발전의 구조…』 아시아경제연구소, 1987년, 160~161페이지. 이러한 상속관계로 인해, 삼성그룹에서도 창업자 이병철의 사후, 한솔, 새한, 제일제당 등의 방계그룹으로 분가현상이 보였다.
12.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은, 어느 산하 기업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해 있지 않았다. 통화위기 후에 IMF나 한국정부로부터 총수의 경영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요구가 강해져, 1998년 2월 이후, 이건희는 제일모직, 김우중은 (주)대우, 대우자동차, 정주영은 현대건설로 각각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또, 현대그룹에서는 98년 2월에 사장단회의가 폐지되고, 종합기획실은 해체되어 구조조정본부로 개편되었다. 「매일경제신문」 1998년2월28일.
13. 은행장에 선임되는 인물은, 제벌과의 관계가 적은 금융전문가로, A은행의 은행장이 뒤에 B은행의 은행장으로 선임되는 등의 사태도 보였다.
14. 1999년 초에 많은 은행의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가 대폭 확대되고, 여기에 주주대표도 가세한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합병후의 한빛은행에서는 상임이사 2명과 사외이사 9명으로 된 이사회가 구성되고,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비상임이사가 이사의 3분의 2정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외환은행에서는, 14명의 이사는 은행장을 포함한 상임이사가 5명, 비상임이사가 9명이 되어, 종래에는 은행장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사회의장에 비상임이사인 박영철 고려대학교교수가 선임되었다. 박씨는 정부계 쟁크탱크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대통령부경제수석비서관, 92년부터 97년까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한국 유수의 금융전문가이다. 「매일경제신문」 1999년3월12일. 박영철의 대표적 저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Park Yung Chul,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Opening in East Asia, Korea Institute of Finance, 1998.  
또, 99년부터 투자신탁 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이 부활되고, 과탄한 제일은행의 한보재벌에 대한 용자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이 송소하는 등, 시민단체 등 소수주주의 발언권도 강해지고 있다.
15. IMF, "Republic of Korea...Request for Stand-By Arrangement" 1997.12.3.: 줄고 「IMF체제와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 『甲南經濟論集』 제39권 제3호, 1998년12월, 참

조.

16. 『한국경제신문』 1999년2월19일. OECD,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1999.4.16.
17. 深川由起子「한국-경제개발의 총결산과 선진화로의 시련-」 原洋之助『아시아경제론』 NTT출판, 1999년. 줄고 「IMF체제와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 참조.
18. 동위원회는, 김재철 무역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상장기업, 금융계 대표와 함께, 기업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운동으로서 참여사회연구소의 주종환 이사장도 참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보자료: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출범』 1999년3월.
19. 『한국경제신문』 1999년3월4일.
20. 줄고 「IMF체제와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 줄고 「여기까지 온 재벌해체·사업교환」 『이코노미스트』 1999년5월18일호, 참조.
21. 金基元「IMF사태 이후 재벌의 구조조정」(주11)
22. 金炯基「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 평가와 전망」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제6회 심포지엄 「IMF관리 후 1년간의 경제정책」. 또, 한국의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해서는, 金大 「한국의 종업원지주제와 노사관계」(金元重 역) 法政大 大原社 問題研究所편 『한국노사관계의 전개와 현상』 1997년, 참조.
23. 金基元, 전계논문. 줄고 「여기까지 온 재벌해체·사업교환」
24. 『한국경제신문』 1999년1월9일, 『매일경제신문』 1999년1월9일.
25. 『한국경제신문』 1999년4월23일.
26. 정몽규는 1988년 현대자동차에 입사, 90년에 이사, 91년에 상무, 92년 전무, 93년 부사장, 96년 회장이라고 하는 이례적인 「스피드 출세」였다.
27. 『매일경제신문』 1998년12월4일.
28.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서비스는, 1999년 2월26일에 열린 양사의 주주총회에서 3월 31일부로 합병할 것을 결의했다.
29. 1999년 3월3일, 정세영은 정주영 명예회장과 만나, 전날 현대그룹회장단 회의(실질적으로는 친족회의)에서 결정된 현대자동차 경영에서의 은퇴를 승복한다고 전하고, 정주영은 정세영이 창설이래 현대자동차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서, 다른 계열회사의 경영을 위양하도록 정몽구 등의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그룹측이 보인 인천제철·현대산업개발 가운데, 정세영 측이 현대산업개발을 선택했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9년 3월5일
30. 『매일경제신문』 1999년3월9일
31. 『매일경제신문』 1999년1월28일. 『한국경제신문』 1999년3월17일.
32. 『매일경제신문』 1999년2월23일.
33. 한국의 상장기업의 주식소유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제출된 「사업보고서」에서 각년말의 소유분포를 확인할 수 있고, 매일매일의 변동은 동 거래소의 홈페이지인 「지분공시」로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룬 현대중공업 등의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제출된 「감사보고서」로 주식소유를 분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
34. 현대산업개발의 인천제철주 소유가 99년2월에 15.11%까지 확대되었지만, 그때까지 정몽구가 회장이었던 현대산업개발은 1999년3월 초순에 정세영·정몽규가 경영을 맡고 분가할 것이 결정되고, 분가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한 인천제철 소유주가 매각되어, 99년 4월9일에 6.78%까지 저하되고 있다.
35. 『매일경제신문』 1999년3월6일.
36. 1999년 4월 금융감독원은,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혐의로 김형벽 현대중공업회장과 박세영 현대상설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9년 4월22일.

37. 정몽규의 현대산업개발에서의 지주비율은 99년 3월5일에 18.02%였는데, 그 후의 증자에 의해 지주수는 변하지 않았으나, 비율이 10.86%로 저하되었다.
38.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 일정」 1999년3월24일.
39. 상위재벌에서도, 외국인 소유비율이 높은 SK텔레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감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사변경요구권을 부여하거나, 집중투표제 도입에 의한 소수주주 보호를 제도화하는 등, corporate governance개혁을 진전시키는 기업이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본 현대그룹을 비롯한 많은 상위 재벌에서는, 이 개혁은 거의 진전되고 있지 않다. 『매일경제신문』 1999년5월13일.

# THE CONTEX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KOREA

Hansei University, Korea  
Byungwoo Lim Jungsoo Yoon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Korea. This study is largely concerned with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between the following major factors: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The rapid decrease in the fertility rate accompanied by the increase in average life expectancy is one of the causes for a rapid increase of proportion and number of elderly people in the population structure. The most immediate obvious demographic change has been the rapid reduction in family size and signs of family composition in transition, which has brought about other subsequent changes in the welfare field. All these demographic changes have partly forced policy makers to develop public services for the care of elderly people. Thus, family care in transition has been confronted by the public services in the form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dustrialisation and urbanisation have encouraged the formation of isolated nuclear families and made family care and informal support networks for elderly people weak. On the other hand, increased formal welfare services available for the care of elderly people have facilitated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Korea.

In terms of the political context,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is largely a result of redefinitions of social policy by policy-makers. They encourage community care for two reasons: one is care in (by) the community concurs with Korean experiences and tradition, thus making it more acceptable; the other is a financial consideration, that a mixed economy of care can enable government to lessen its direct contribution. It can be assumed that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s mainly to meet some organisation aims. However, the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appeals to humanitarian ideas as well.

## Introduction

In Korea,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has been undergoi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in the past two decades. Most literature on the subject of community care offers rich accounts of its origin and development, but the work has been mostly applied to the western societies of the last few decades. Moreover, the explanation and theoretical formulation offered by existing literature on community care mainly considers its origin and development as the combined effect of the internal economy, political philosophy, and demographic forces. As argued by Higgins: 'any interrelated economic, political and ideological factors affect both the wider context of welfare and the specific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mmunity care policies for elderly people' (Higgins, 1981; Tester, 1996, p.13).

The available literature tell us exactly how and why these factors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However, it remains unclear as to wh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factors is and just how much they influence the final outcome of community car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Korea. This study is largely concerned with a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between the following major factors: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all of which are possibly entailed in the development and emergence of community care. In the study,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are viewed as dependent variables. It is another important task to answer the question; what environmental forces influence the content of community care in Korea.

### I. DEMOGRAPHIC FACTOR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was predicted a long time ago but the reaction to the change has been risen in recent Korea. This is due, first of all, to the government population policy which has given priority to birth control. Secondly, it has been recognised for policy-makers that social problems stemming from elderly demography changes can be solved through

Confucian doctrine-oriented family policies (Yoon, 1995, p.7). It is questioned what and how much these two policie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this part, firstly the population size in reference to population policy is presented. Secondly, the population structure,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mographic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s analysed.

## I] Population policy and size

In Korea an extremely high birth rate had been maintained until the adoption of the population control policy in 1961 (Chang, 1993, p.59). At the time of the 1949 census,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was around 20 million and the population increase rate was 49 in 1,000 persons. On the other hand, in the 1990 census, the population reached around 42 millions and the population increase rate was below 10 in 1,000 persons. As seen table 1-1, the rate of decline in the population has increased since 1960 mainly due to the successful accomplishment of the new population policy (Yoon, 1995, p.10).

**Table 1-1: Total population and vital statistics  
1949-1995 in Korea, Per 1,000 persons**

Year	Population	CBR	CDR	NIR
1949	20,189	-	-	49
1960	25,012	42.0	13.0	29
1970	31,435	32.1	9.4	22.7
1980	37,407	23.4	6.7	16.7
1990	43,390	16.5	6.0	9.5
1992	43,663	15.4	5.8	9.6

source: NSORK (1993), Social Indicators In Korea,  
Seoul, NSORK, p.41.

Notes: CBR;crude birth rate, CDR;crude death rate,  
NIR; Natural increase rate

Population policy included direct and indirect measures influencing births, deaths, and migration of people in general (Chang, 1993, p.53). In the early 1960s, the birth control program evolved primarily in response to the high

level of birth rate. However, from the early 1970s the policy was focused on a small family norm. The slogan was publicised: 'aughter or Son, stop at two and bring them up well'. From the beginning of the 1980s, population policy, especially birth control measures, had heavily connected with integration with other social development programmes. The policy was instituted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Fifth Five-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1982-86) (Lee, 1993, p.112). The primary content was improving the management of the existing family planning organisation, strengthening various social supports to instil the value of having fewer children, and establishing a system for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Chang, 1993, p.59). Owing to these measures, as table 1-1 demonstrates, the result of the recent rate of population increase keeps to a very low level.

## II] Population structure

The structure of population is seen as a major challenge to social and health services, and affects the support of elderly people in many industrialised countries. This connection is relatively new to Korean society. However, Korea is also alarmed by a rapidly increased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in the total population and by the decreased potential of informal caregivers.

The population structure of Korea has drastically changed over the last four decades (see table 1-2). In terms of overall population structure, the proportion under 14 years of age was 42% of the total population in 1970. However, the proportion of this group dropped to 34% in 1980 and 26% in 1990.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t an age to be involved in economic activity had steadily increased about from 55% in 1960 to 70% in 1990 of total population. The elderly population had increased from 0.98 millions (3.9%) in 1960 to 2.01 millions (4.7%) by 1990.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d by 1.03 millions over 40 years between 1960 and 1990. It is anticipated that it will continue to increase and will reach around 4.0 millions (7.4%) by the year 2005.

**Table 1-2: Changes in the age structure of population and projection in Korea, per 10,000 persons(%)**

Year	Total Pop.	Age group		
		0-14	15-64	65+
1960	2,501	1,015(40.6)	1,390(55.6)	98(3.9)
1970	3,224	1,357(42.1)	1,760(54.6)	109(3.4)
1980	3,812	1,196(34.0)	2,371(62.2)	145(3.8)
1990	4,279	1,108(25.9)	2,970(69.4)	201(4.7)
1995	4,596	1,160(25.2)	3,197(69.6)	240(5.2)
2005	4,971	1,058(21.3)	3,544(71.3)	369(7.4)

Source: NSORK (1991), Population projection (Yoon, 1995, p.9)

While there will be a relatively low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in the total population,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K, yet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confront a similar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to advanced countries in the near future. One of the crucial causes of this phenomenon is the increasing life expectancy. As shown in table 1-3, average life expectancy had increased 55.3 years in 1960 to 71.3 in 1990. There may be more women than men because women have a longer life expectancy. This advance is mostly due to improvement in sanitation, the discovery of antibiotics, and medical care advancement (Rhee, 1995, p.60).

**Table 1-3: Life expectation from 1960 to 2021 In Korea, age**

	1960	1970	1980	1990	2000	2021
Average	55.3	63.2	65.8	71.3	74.3	77.0
Male	53.0	59.8	62.7	67.4	71.3	74.9
Female	57.8	66.7	69.1	75.4	77.4	79.1

Source: Choi, SJ. (1993), long-term direction of social policy for elderly people, Social welfare, p.63

On the other hand, another aspect of demographic structure which influences welfare service provisions is the decrease in potential caregivers and supporters for elderly people within the family system. There are three changes that have caused particular anxiety, namely, increasing divorce rate, married women work participation, and decreasing family size.

Firstly, divorce and subsequent remarriages have increased substantially in

THE CONTEX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KOREA

the past decades in Korea. As table 1-4 shown, the trends in divorce dramatically increased during the 1980s.

**Table 1-4: The growth of the divorce rate in Korea**

Year	Total cases of		Divorce rate per	
	Marriage	divorce	1,000 persons	100 marriages
1970	295,137	11,615	0.88	3.94
1980	400,471	23,150	1.83	5.78
1989	343,285	45,039	3.12	13.12

Source EBP, vital registration statistics (Chang, 1993, p.245)

The increase in the divorce rate led households to increase a diversity of type of composition such as single parent and children, grand parents and grandchildren, and three or four-generation families without intermediate generation. It means in certain cases that elderly people have to take on a role of caregivers rather than carereceivers within households.

Secondly, married women are encouraged to enter the work force in increasingly larger numbers than in the past, due to the prolongation of women post-child care lives and increasing well-educated and middle class married women who seek the maintenance of a professional career. Table 1-5 indicates evidence that married women (75.5%) in 1990 are more likely than those (72%) in 1980 to be in a labour market. As a result, the family care for elderly people in Korea is, from another aspect, a burden because a married woman has to carry out both professional and caring work for the elderly.

**Table 1-5: Percentage of married employed female in total employed female in Korea,\* 1,000; persons, \*\*%**

	1980	1990	1992
Total female employed *	5,222	7,341	7,609
Single **	28	24.5	24.9
Married female **	72	75.5	75.1

Source: NSORK (1993), Social Indicators In Korea, Seoul,  
NSORK, p.83

Thirdly, a factor affecting care provisions for elderly people in Korea is the decreasing family size, and family composition in transition. The trend of

sizes of households for the whole country is shown in table 1-6. The average size of household has been lost from 5.49 persons in 1966 to 3.71 persons in 1990. In average two persons were reduced in the course of one generation. Moreover, the proportion of three or four-generation families fell from 23.2% in 1970 to 12.4% in 1990.

**Table 1-6: Average family size and composition of ordinary household in Korea, \*persons, %\*\***

	1966	70	75	80	85	90
Whole nation *	5.49	5.24	5.04	4.55	4.09	3.71
Urban *	5.1	4.9	4.9	4.4	4.0	3.7
Rural *	5.7	5.5	5.4	4.7	4.2	4.0
1GF**	-	6.8	6.7	8.32	9.6	10.7
2GF**	-	70.0	68.9	68.5	67.0	66.3
3GF**	-	22.1	19.2	16.5	14.5	12.2
4GF**	-	1.1	0.9	0.5	0.4	0.2

source: \* Census, 1966-1990 \*\* NSORK (respective census year),  
population and housing sensus Report (Yoon, 1995, p.18)

Notes: GF; Generation Family

However, it is characteristic that the two-generational family has slowly been diminishing and the one generation family has rapidly increased. In short, the family composition in Korea has been transformed from the type of an extended family to that of a nuclear family. Considering that the majority of elderly people who are cared for by a family belong to a three-generation family, the transition of family composition of household in Korea as a whole is different from the pattern affecting elderly people.

These trends imply that the availability of care for elderly people by offspring within their family may be shrinking.

To sum up, the rapid decrease in the fertility rate accompanied by the increase in average life expectancy is one of the causes for a rapid increasing proportion and number of elderly people in the population structure. The most immediate obvious demographic change has been the rapid reduction in family size and signs of family composition in transition, which has brought about other subsequent changes in the welfare field. All these demographic changes have partly forced policy makers to develop public services for the care of elderly people. Thus, family care in transition has been confronted by the

public services in the form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 II. SOCIO-ECONOMIC FACTORS

The wider context of social policy, according to Tester (1996), is particularly dependent on the economy and economic policy. Major changes in principles and practice of social welfare often follow economic crises and recessions in western countries (p.13). In a similar vein, according to Usui (1988), Flora and Alber (1981), and Meyer (1980) socioeconomic conditions are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rucial factors for the growth or decline of welfare services (p.1). In this section, we investigate inter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in particular industrialisation and urbanis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services for elderly people in Korea.

### I] Industrialisation

The term industrialisation was originally used to refer to machine production, the basis for an enormous growth in productivity, but in modern times it refers to a mode of economic growth (Kemp, 1978, p.9). In this study, the latter is more emphasised than the former.

In Korea,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characteristic of industrialisation is a rapid decline of agriculture sectors. On the other hand, a sharp increases in the fields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service sectors since the independence from Japan in 1945 (see table 1-7).

**Table 1-7: Composition of an employed person by industry in Korea (%)**

Year	Agriculture Forestry & fishery	Manufact- uring	Service & others	Total
1940	80.2	4.2	15.6	100
1960	65.4	10.1	15.0	100
1970	50.4	14.3	35.3	100
1980	34.0	22.5	43.5	100
1990	18.3	27.3	54.4	100
1992	16.0	25.5	58.5	100

source: NSORK (1993), Social Indicators In Korea, Seoul,  
NSORK, p.75 & Census, 1960

Notes: Manufacturing included mining sector.

First of all, Land Reform (1947), then the Korean War (1950–1953), and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ransforming the industrial structure. After independence from Japan in 1945, a National Land Reform Administration (NLRA) was established as an agency of the state to acquire by compulsion privately-owned land at a standard price of three times the value of the annual crop. Land so acquired, plus the land confiscated from the Japanese, would be sold at the standard rate to tenants and others in accordance with priorities assumed to reflect the relative fitness of various types of families to take over its operation (You, 1986, p.14). With the Land Reform, there was no longer any landlord class and the former landlords had an opportunity to invest their capital in industry. Therefore, the economy development was encouraged in urban areas and a part of the overgrown rural population was drained to urban areas. It was seen that Korea could have undertaken industrialisation in its real sense.

However, the Korean War (1950–53) did crucial damage to Korean industry. Lee, K.B. describes this: 'bout 43% of manufacturing facilities, 41% of electrical generating capacity, 50% of the coal mines, and one-third of the nation's housing was destroyed' (Lee, 1984; Chang, 1993, p.40).

Rapid industrialisation in Korea was launched with the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1962. As shown in table 1-7, the structure of industry sectors had dramatically been changed. About 65% of employed people in 1960 were i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sectors but, the figure had dropped to around 18%. On the other hand, manufacturing (10 to 27%) and service (15 to 54%) sectors had increased for three decades between 1960 and 1990.

Connected with economic growth, industrialisation is generally measured by per capita income in a country. Economic growth was remarkable for the last 40 years. Per capita income of Korea had grown from US \$ 65 in 1955 to US \$ 6749 in 1992.

**Table 1-8: Increase of per capita income between  
1960–1995**

year	1955	1970	1980	1990	1992	US \$
Per capita income	65	252	1592	5659	6749	

Source: NSORK (1993), Social Indicators In Korea, Seoul,  
NSORK, p.59.

THE CONTEX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KOREA

The most general type of economic argument maintains that the development of welfare services, such as formal services for community care, is a result of industrialisation (Sigerist, 1943; Usui, 1988). The process of industrialisation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primary sources for creating new social problems, like taking care of elderly people, that inevitably calls for formal welfare solutions in Korea. While an agricultural societal stage had considerable welfare needs, certain welfare provisions could be provided by informal sectors, especially by family networks to meet their needs non-monetary ways. However, in an industrialised societal stage, the majority of people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depend on cash income and wage work, which bring about a number of new contingencies that can seriously jeopardize individual and family lives. The recent perspectives on welfare services resolve around the notion of needs accompanying industrialisation. The government automatically responds to societal needs in the realms of formal social and health services (Usui, 1988, p.11). Therefore, there must be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government spending on the welfare sector and industrialisation. A function of the growth in national wealth could be expressed through the growth of formal welfare services (Park, 1993, p.29). This argument is supported by several writers such as Cutright (1969), Wilensky (1975), and Riminger (1971). Table 1-9 provides some statistical evidence for the argument above.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budget in government expenditure had steadily increased from 6.0% in 1960 to 7.0% in 1980. Welfare services budget for elderly people had strikingly increased from the late 1980s to the early 1990s alongside economic growth (see & compare between table 1-9 and table 1-8).

**Table 1-9: Expenditure structure of the government  
in health and welfare sectors\*. %**

Year	1970	1980	1990
Health	0.9	1.9	2.7
Social welfare	5.1	3.5	7.3
Total	6.0	5.4	7.0

Trend of welfare service budget for elderly people in total welfare budget**.	Unit: %			
Year	1987	1988	1990	1992
Elderly people	8.7	8.9	31.0	30.0

source: Summary of budget for fiscal year (Chang, 1993, p.302\* p.299\*\*)

According to a functionalist theory of welfare, the dynamic impacts of the socioeconomic changes associated with social problems have emerged during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of society. The proportion to which formal welfare services emerged and expanded as an integral element in the dynamic of industrialisation is central to many accounts of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Midgley, 1986, p.226). One of the criteria for increasing welfare resources available in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s the analysis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for health and social welfare sectors, especially the welfare service budget for elderly people presented above. This analysis is based on an assumption that much higher budgets for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s will entail mor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elfare services being provided in community care (Kwon, 1997, p.470). It is inevitably necessary that financial resources are provided by the govern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most formal welfare services to provide for elderly people in community care, for instance, home help services and home visiting nurse.

## II] Urbanisation

The term urbanisation has two meanings. One refers to the agglomeration of population to the urban areas, the other refers to change of life styles in rural areas to conform to those of the urban pattern. In connection with community care, both concepts are likely to be influenced.

**Table 1-10: Population size and proportion of urban to total population**

Year	Population			Proportion of urban pop. Million, %
	Total	Urban	Rural	
1940	24.33	1.87	22.46	7.7
1949	20.19	3.48	16.71	17.2
1960	24.99	7.00	17.99	28.0
1970	31.44	13.61	17.83	43.3
1980	37.44	21.42	16.02	57.2
1990	42.80	30.64	12.16	71.6

source: Census (respective yes) (Chang, 1993, p.41).

THE CONTEX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KOREA

First of all, as shown in table 1-10, the increase of the urban population was a significant trend in the late 1940s and 1960s. It was caused by the repatriation after independence (1945) and, as mentioned earlier, a result of Land Reform (1947). In addition, refugees from the North (1.5 millions before/after Korean War) immigrated into the southern part of Korea during/after Korean War (1950–1953) (Lee, 1984; Chang, 1993, p.40). Most of them settled down in urban areas. Furthermore, there was also a post-war baby boom. As of 1990, more than 70% of Korean population has conglomerated in urban areas.

Until the early 1960s, non-economic factors mainly impacted on the immigration of the population into urban areas. However, after the First Five Economic Development Plan (1962), with urban centred industrial development, the trends of capital flow stimulated rural people to immigrate into urban areas (Chang, 1993, p.41).

Urbanisation impacts on the population structure. Urban areas have provided more opportunities to obtain jobs, education, cultural facilitie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young people. Otherwise, many elderly people would not have been anxious to move from longstanding social networks in the rural community (Ha & Chung, 1990; Palley, 1992, p.794). Table 1-11 shows the comparison of the population structure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1960 and 1990. About 44% of the rural population was aged below 14 in 1960. But, this group had dramatically decreased to 19% in 1990. However, at the other end of the age range. There was about 4% of people aged 65+ in 1960, but around 9% in 1990.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under 14 had sharply declined in rural areas, while that of the elderly had significantly increased.

**Table 1-11: The change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by region, %**

	1960			1990		
	Average	Urban	Rural	Average	Urban	Rural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0-1	42.55	41.6	43.5	23.80	28.6	19.0
15-64	54.50	56.2	52.8	70.25	68.3	72.2
65+	2.95	2.2	3.7	5.95	3.1	8.8

Source:Census (1960 & 1990) (Chang, 1993, p.57)

Urbanisation has resulted in an increase in inter-generational friction along with lower status for elderly people. The problem for elderly people and family members in three-generation household is that room units are usually too small, leading to friction and lack of personal space (Palley, 1992, p.790). The absolute number of the population has increased faster than the growth in the housing stock in urban areas (Chang, 1993, p.153) and new housing is often quite expensive and too small to accommodate the needs of elderly parents in multi-generalisation families (Palley & Usui, 1995, p.243).

The other aspect of urbanisation in rural areas is life style including family system, family structure, kinship boundaries, role distribution and power have changed to those of the city. The urbanisation out of country side can be explained by ideological change. Due to economic and per capita income growth, life patterns in rural area have been becoming more individualistic and materialistic as a by-product (Hong, 1987, p.121). The younger generation is pursuing their values to emphasize individual rights and duties, casting off the group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family. Individualism could not help but have an affinity with a small nuclear family (Chang, 1993, p.149). As a result of the preference for individualism, the family tie required for the care of elderly people within households has been weakened by the urbanisation of rural areas.

It can be concluded that industrialisation and urbanisation have challenged and modified traditional perspectives on elderly people in a family system and led elderly people to being of relatively low status in Korean society. In the traditional Korean family and society, elderly people were respected for their wisdom and knowledge. As the most important member of the family and society, his/her decision was the most influential in shaping the direction of the family and society.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sation and urbanisation, the status of elderly people as decision-makers in family society affairs has been changed or weakened. With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y controlled by technical experts, elderly people's social influence in Korean society cannot help but be limited (Shin, 1995, p.43). Evidence affecting the phenomenon is presented in the analysis of previous surveys it who should look after elderly parents. As shown in table 1-12, filial duty to parents is not limited to the eldest son only.

THE CONTEX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KOREA

**Table 1-12: Responsibility for looking after elderly parents in Korea %**

Year/	I	II	III	IV	V	VI	Total
1979	30.6	22.2	0.6	6.6	36.6	3.6	100
1988	25.2	17.8	0.5	35.8	15.8	5.0	100
1991	18.3	13.8	0.4	46.2	15.4	5.9	100

Source:EPB (1990), social statistics survey (Chang, 1992, p.242)

Notes: I;the eldest son, II all sons, III; daughters, IV sons and  
daughters together,V; self-reliance,VI; social welfare and others

It has been extended to other sons or daughters (category IV) as well. More than one in five people prefer that parents are cared for by the welfare services (VI) or by them selves (V) in 1991. It can be implied that the duty for all children is the duty of nobody. The boundary of filial responsibility can be vague among children, and parents can be abandoned by each child in turn.

Industrialisation and urbanisation have encouraged the formation of isolated nuclear families and weakened family care and informal support networks for elderly people. On the other hand, increased formal welfare services available for the care of elderly people have facilitated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Korea.

### **III. POLITICAL FACTORS**

The previous sections of the study is to give the background for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in Korea. This section explores the way in which political factors have influenced the background of the evolution of social policy for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recent years, more elderly people, particularly low-income and childless elderly people, have been receiving formal services in community care, such as home help and home visiting nurse services. But so far the level of benefits received from formal services in community care remains very low. Many elderly people in need are not covered by community care.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s still in its infancy stage in Korea. The following analysis explains why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s underdeveloped and why policy-makers

are now attempting to develop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 I] Political ideology and social policy

The Republic of Korea (ROK) was born with a new constitution promulgated in July 1948. Shortly after the first Republic of Korea was born, North Korea, with a communist regime, invade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igning of an armistice treaty in July 1953 left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nations roughly where it had been three years previously (Cherry, 1993, p.24). The Korean war had significant consequences for later political ideology and social policy in Korea. After the Korean War, no communist activities were permitted in Korean society. Even a leftist party or the espousal of moderate left policies became dangerous (Lee, 1997, p.141). Therefore, Korean politics since the Korean War have been continuously occupied by the Right-Wing (Conservatives). Another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social policy in Korea was the American Occupation Authorities (AOA) (1945–1948). The AOA introduced a market ideology into the welfare sector, including medical services such that private services were emphasised. The state monopoly on social functions was banned and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welfare institutions was encouraged by the AOA through the means of considerable relief aid. (Chung, 1992; Lee, 1997, p.165). These two main factors established in the late 1940s and early 1950s, conservative political ideology and market ideology, led the Korean government to give little attention and effort to enhancing the state capacity fo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until 1990s.

The first and second republics of Korean government (1948–1960) could not establish modernised social welfare provisions. The period was more characterised by political concern than with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The main social policy taken by the government was to provide the necessities for refugees, homeless people, and disabled veterans (Lee, 1997, P.166).

Through the 1960s, minimal provisions relevant to social welfare services were introduced and revised from old colonial laws by the military regime (1961–62) and the third republic of the Korean government (1963–1971), such as the Living Protection Act (1961), Disaster Relief Act (1962), Medical Insurance Act (1963) and the basic law for the Social Security System (1963), pension schemes for military personnel and government employees. Many of

these were suspended, not to be put into effect until the late 1980s onwards. However, the schemes for military personnel and government employees were implemented (Park, 1993, p.110). The new military government might have needed to create legitimacy and to secure sovereignty. Evidence for this is that the conservative ideology on welfare policy also appeared in this era. Another source of minimal provisions kept by the government was due to a high percentage of defence expenses in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due to geo-political and historical conditions with a divided nation-state and the Korean War. As table 1-13 shows, such a huge defence spending has been associated with a small increase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

**Table 1-13: Social development and defence expenditures(1965-1990)**  
 in Korea      billion of Won,      (%)

Year	1965	75	85	90
Total	93.5	1,535.3	15,000.3	32,536.9
SDE	5.0(5.4)	61.2(4.0)	843.3(5.6)	2,450.3(7.5)
DE	29.8(31.9)	442.4(28.8)	3802.5(25.3)	6856.2(21.1)

Source:Ministry of Finance (1990), various issues of summary of financial statistics (Lee, 1997, p.167)

Notes: SD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as % of government expenditure), DE; defence expenditure (as % of government expenditure), SDE include the expenditures for health, housing, social security,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ddition to this, political-economic policy and export policy drives enforced the development of welfare provisions to be regarded as secondary importance (Lee, 1993, p.113). Korea switched from an import-substitution to export-led strategy of economic industrialisation (Kihl, 1994, p.46). Rapid industrialisation in the 1960s produced in part an important social and economic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s for the 1970s.

The government shifted a development policy emphasis from the economic growth-oriented one to a broader social development (Park, 1993, p.111).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Programme (1973) and Medical Insurance Program (1976) were formulated, but implementation of the pension programme was postponed until 1980s and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me only began to provide its benefits to certain groups of society in 1977.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Programme also was suspended by the conservative ideology.

Policy-makers believed that filial piety for elderly people was still alive in Korean society and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was not a serious problem for them to initiate social policies to cope with (as of 1973, the portion of the aged was 3.3% in Korea). The first oil shock in 1973 allowed postponement and made the new policy dormant for 13 years until it was revised and up-dated in 1986 and finally put into effect in 1988 (Lee, 1997, p.180).

In the beginning of the 1980s, even the new military government, the fifth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publicly made as its slogan: 'The construction of welfare state'. The legacy of Confucianism for residualised services was clearly evident in the process of welfare policy implementation (Kihl, 1994, p.50). Two examples of this were the Elderly Welfare Act (1981) and the Respect-For-Aged Charter (1982) in order to enact and promulgate for promoting the traditional filial piety and respect for elderly people. Professional and elderly interest groups such as the Korean Senior Citizen Association, the Korean Institute on Gerontology had increased pressure to develop formal services for elderly people. Thus, the Korean Aging Policy Act of 1982 outlined the government approach to services and policies for elderly people. However, its primary features were an emphasis on tax incentives, awards, and honorifics to encourage families to provide care for elderly people (Palley, 1992, p.797) rather than an increase in formal services.

The general election of 1985 gave a great shock to the ruling party - it lost about two-thirds of its national assembly seats. In September 1986 the government announced three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social welfare programme: a minimum wage law, the national pension programme, and expansion of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me to the entire nation (Lee, 1997, P.188). Medical insurance for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ery villages in 1988 and for the urban residents in 1989 was increasingly expanded with the co-operative system in which numerous self-supporting insurance societies were organised. The implementation and expansion of the national pension programme began in January, 1988. The programme applied compulsorily to most employees between the ages of 18 and 60 (Choi, 1995, p.129). The government plan applied to all the people including self-employed in urban and rural areas by the late 1990s. While in 1990, only 2% of those of 65+ received a public pension, and about 15% by the 2010 and about 50% in 2040 will get a pension (Park, 1989; Palley, 1992, p.798).

From the early 1990s the new welfare policy direction was installed. The western socio-economic influence (globalisation and Super 301 of USA) with the rapid growth of needs for social services led the government to emphasize the policy of a mixed economy of welfare (Park, 1990, p.35). The notion is the shared responsibility of informal, voluntary, private, and the state sectors. The emphasis in social policy has shifted away from informal services to encouraging private sectors, particularly to meet the needs of elderly people. It did so by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o the private sector. One recommendation suggested by the Elderly Welfare Act 1992 is that the welfare authorities may give proper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o those who are involved in the home service for elderly people in order to improve of the quality of life (Article 11).

In sum, political ideology in Korea has not changed over the past decades. The major political ideology which has prevailed is Right-Wing (Conservative), which had been strongly influenced by the Korean war. A series of social policies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may be seen as a part of an evolving government strategy in Korea. Firstly, the nation-building imperative assumed that rapid growth would result in significant improvement in general welfare for the mass of the population; secondly, the geo-political factor explained why a huge defence spending would be enforced and thus limit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irdly, strong Confucian ethics led the government to introduce the residualisation of social services; fourthly,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fluences linked to increasing needs for welfare services would press the government to introduce the mixed economy of care; fifthly, in addition to these, social policies were used as a means of political legitimization. As we have seen, the Korean authoritarian government suffered from a weakness of political legitimacy. Most major social welfare programmes were initiated and developed at a time of political cr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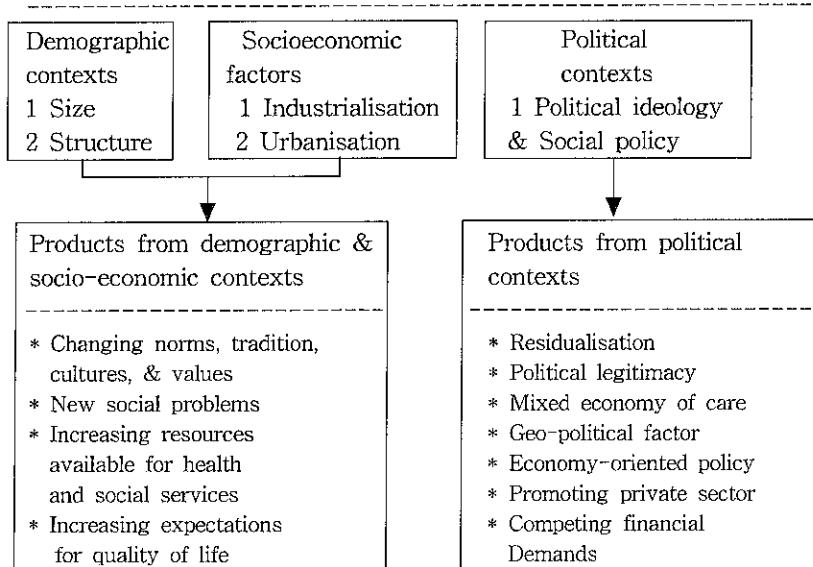
#### **IV. CONCLUSION: IMPLICATION FOR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This study has examined background material relevant to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Korea, especially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But it cannot be said t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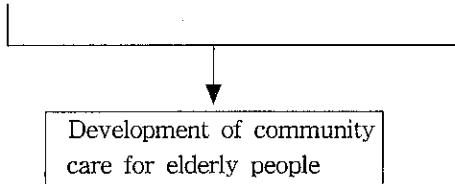
those policies mentioned so far are adequate to explain fully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in Korea. For example, elderly people preference to stay in their home is regarded as a major issue i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them. Most Korean elderly people are ashamed of being sent to institutional care provisions.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staying in institutional care is only 0.3 % of the total elderly population in 1997.

The background can be clearly observed by a series of indicators: changing demographic size and structure, especially the increasing number and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seen as care receivers; and also the decreasing number and propor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acting as informal care givers. The socio-economic changes, associated with social problems which had emerged during the industrialisation and urbanisation of Korean society dynamically impact on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dustrialisation has created social problems, and should supply substantial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formal services in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current economic constraints will lead policy-makers to emphasize the development of informal care and the voluntary sector rather than state services in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Figure 1-1: Diagrammatically represents key factors in the emergence of community care in Korea**



THE CONTEX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KOREA



In terms of the political context,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results from redefinitions of social policy by policy-makers. They encourage community care for two reasons: one is that care in (by) the community concurs with Korean experiences and tradition, thus making it more acceptable; the other is a financial consideration, that a mixed economy of care can enable government to lessen its direct contribution. It can be assumed that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s mainly to meet some organisation aims. However, the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appeals to humanitarian ideas as well.

## REFERENCES

- Chang, HS. (1993), Modernisation and changing family structure in Korea,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Sheffield.
- Cherry, J. (1993), Republic of Korea, London & NY, Cassell.
- Choi, SJ. (1993), The long-term direction of social policy for elderly people, Korea, Social Welfare, Spring, pp.61-88.
- Choi, SJ. (1995), Social welfare policy for elderly Koreans; in Choi, SJ. & Shu, HK. (1995), Ageing in Korea, Seoul, Chung-ang publisher.
- Cutright, P. (1965), Political structure,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 (4), pp.537-550.
- Hong, SC. (1987), Korean social values in the year 2000; in Han, SJ. & Myers, RJ. (1987), Korea: The year 2000, Carnegie Council on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USA,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 Kemp, T. (1978), Historical patterns of industrialisation, London, Longman.
- Kihl, YW. (1994), The legacy of Confucian culture and South Korea politics and economics: An interpretation, Korea Journal, Vol.34 (3), pp.38-53.

Kwon, HJ. (1997), Beyond European welfare regime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East Asia welfare state, *Journal of Social Policy*, 26 (4), pp.467-484.

Lee, MW. (1993),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policy on poverty and distribution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ocial benefit system; in Park, FK. & Krausel, LB. (1993), *Social issues in Korea: Korean and American perspectives*,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Lee, SY. (1997),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in Korea: A comparative study of its determinant, characteristics, and future direction,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Kent.

Midgley, J. (1986), Industrialisation and welfare: The case of the four little tiger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20 (3), pp.225-238.

Ministry of Justice, R. of Korea (1992), *The Elderly Welfare Act*, Seoul, MJRK.

National Statistics Office, R. of Korea (1993), *Social Indicators in Korea*, Seoul, NSORK.

Palley, HA. (1992), Social policy and the elderly in South Korea, *Asian Survey*, Vol.32 (9), pp.787-801.

Palley, HA. & Usui, C. (1995), Social policies for the elderl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29 (3), pp.241-257.

Park, BH. (1993),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 in East Asia: Case studies of Japan, Korea, and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1945-1989,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rk, HS (1990), Social change in Korea: Trends and issues; in Kim, D. & Healey, G H. (1990), *Korea and the UK: Political and economic trends and issues*, Seoul,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Rhee, JR. (1995), Health status of Korean elderly; in Choi, SJ, Shu, HK. (1995), *Ageing in Korea*, Seoul, Chung-ang publisher.

Riminger, GV. (1971),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sation in Europe, America, and Russia*, NY & London, John Wiley & Sons Inc.

Shin, SJ. (1995), Status and role of the elderly in modern Korean society; in Choi, SJ. & Suh, HK. (1995), *Ageing in Korea*, Seoul, Chung-ang publisher.

Tester, S. (1996), *Community care for older people: A comparative perspective*, London,

THE CONTEX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KOREA

MacMillan Press.

Usui, C. (1988), The origin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welfare state: A study of societal forces and world influences on adoption of social insurance policies 63 countries, 1880-1976, Ph-D thesis, Stanford University.

You, TY. (1986), The patterns of rural development in Korea, Seoul, The Institute of Saemaul, Konkuk University.

Yoon, JJ. (1995), Population aging and changes in family factors; in Choi, SJ. & Suh, HK. (1995), Ageing in Korea, Chung-ang publisher.

Wilensky, HL.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Structur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s, LA & London, U. of California press.

## 말기 환자의 물음

오사까경제법과대학

김 영 일

의료 현장에서는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적이며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의료 종사자는 평소 [죽음]이라는 문제에 진지하게 임하게 되고, [죽음]을 말하자면 철학상의 문제로서 깊이 생각해 나가고 있으리라고 누구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죽음]은 어디까지나 생물학상의 현상으로, [죽음]은 자신들의 기술상의 패배를 의미하는, 미워해야 할 존재, 기피해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되도록 [죽음]은 보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도 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종종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갑자기 불쾌하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그 가족들과 되도록이면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도록 꺼리고 있다] (G. M. 포스터).

또 설령[죽음]이 일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본다는 것은, 의료인에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쿠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아카히게]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카히게-新出去定이, 나가사키에서 돌아온 야심만만한 젊은 의사 保本登에게 말기 환자의 최후를 돌보게 합니다. 그의 앞에는 허술한 이부자리에, 말 그대로 뼈와 가죽만 남은 노인이 누워 있습니다. 이미 의식은 없어졌고, 불규칙한 하악(下顎)호흡이 시작되어, 하-하-거리는 노인의 가래섞인 숨소리만이 들립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登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면, 그 역시 고통에 얼굴을 찌푸리고 거칠어진 호흡으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가고 싶은 충동을 필사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登은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맙니다.

최근 안락사 사건에 대한 고소가 몇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고통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라지게 해 주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정말은 자신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단언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컨대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본다는 것은 그 정도로 의료인에게도 큰 전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환자의 [죽음]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방법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로 삼아 버리는 것입니다. 의사의 사명이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일 분이라도 환자를 연명시키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받은 교육은, [죽음]의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렇게 하면, 정맥 주사다, 기관 철개다, 심장 맷사지다, 라며 늘 일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그런 식으로 [죽음]을 숨기는 의료의 태도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임상]이라는 세미나가 열리고, 터미널 케어 연구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게 되고, [죽음]을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인간의 [죽음]이라는 용어로써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임상의에게는 [오로지 연명을]이라는 의료로부터 벗어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기 환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구미의 [호스피스] 운동을 모델로서 생각했지만, 병실에 흐르는 찬송가, 베갯머리에서 종교인이 들려주는 설교에 의해 모두가 [죽음]을 받아 들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 대상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터미널 케어의 대상은 [죽음]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그것을 모르고서 말기 환자에 대한 케어가 가능한 것일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죽음](제3인칭의 죽음, 제2인칭의 죽음)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죽음(제1인칭의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탄생이 우리에게 미래형이 될 수 없는 듯, 죽음을 결코 과거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을 때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요네스코)

그것은 철학이나 예술에서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물리학을 연마한다 해도 [사물 그 자체]에는 도달 할 수 없는 듯이, 생물학을 아무리 연구한들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듯이, 과학이 단순한 지식의 수집이라는 것을 넘어 [지(知)]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이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사유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과제를 위해 문학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뛰어난 문학은 우리들 개개인의 경험적 사실의 집적보다도 많은 진리를 알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호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이반 뇌체의 죽음]은, 바로 그러한 절호의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이하, 잠시 그 소설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인공 이반 이리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시정 재판관입니다. 그는 그런대로 유복한 청춘 시절을 지내고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순조롭게 출세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세상의 일반인에게, 그것은 실로 잘 풀려가는 인생이

었습니다. 이리치는 자기의 지위와, 무엇보다도 일의 내용에 굉장히 만족해 했습니다. 제 아무리 득의 양양하게 거들먹거리는 사람이라도, 그의 직장에 들어오게 되면, 예외 없이 그들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만족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에 대한 의식, 어떠한 사람에게도 생살여탈(生殺與奪)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재판소에 들어갈 때나 부하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존경의 태도, 상관을 비롯해서 屬官을 이기고 얻은 성공, 특히 스스로도 의식하고 있는 사무 수완, 이러한 모든 것이 그를 기쁘게 했고, 동료와 나누는 하찮은 대화, 특히 좋아하는 카드 승부등과 함께, 그의 생활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의 생활 신조는 [조금 품위있고, 유쾌하게]였고, 지금 그의 생활은 [모든 것이 풍족해서 좋은 것 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리치는 오른 쪽 옆구리에 약간의 통증을 느낍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는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불안감이 커지고 그것은 짜증으로 나타나게 되어, 원래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왔던 아내와의 관계에 노골적인 언쟁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국 의사를 찾아 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진찰을 받는 그는, 마치 법정에 선 피고와 다름 없었습니다. 의사는 거만한 태도로 판에 박힌 진찰을 한 뒤, 맹장이 어떻다, 신장이 어떻다는 등, 세세히 설명을 했지만, 이리치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설명에서 쏙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상태가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이. 이리치는 그것에 대해서 결국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기운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모든 그의 일은, 의사의 주의를 지키는 것과, 통증과 모든 내장 기관의 작용을 관찰하는 것에 집중되었지만, 역시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로 의사를 찾아 다닙니다. 마침내는 미신에 의지하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아연해 지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병세는 진행되었고, 육체적인 쇠약은 나날이 더해갑니다. 어느 날, 그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맹장이라든지, 신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 원래는 생명이 있었다. 그것이 지금 달아나려 하고 있다....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의식이 그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자신은 다른 여느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죽음]앞에서, 명하니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병은 그에게서 행동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이미 배변조차 혼자서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배변을 할 때마다 그의 고통은 배가 됩니다. 그것은 불결함과 체면이 깎이는 것과, 악취, 다른 이가 함께 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때문에 불러 일으켜지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침상에서 지내는 이리치에게 그것은 언제나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바라는 그런 동정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그의 바람은 -그것은 자신에게 고백하기에도 창피한 것이지만- 병에 걸린 아이를 가엾게 여기는 것처럼, 누군가 마음 아파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어르거나, 달래 주는 것처럼 쓰다듬기도 하고, 입맞추어 주거나, 울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료가 병문안을 오면, 그런 마음은 내색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분별 있는 표정을 지으며, 재판상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리치는 드디어 하인 게러심에게 들리는 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아이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의지할 테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무서운 고독을 느끼고, 인간의 잔혹함을 생각하고, 신의 잔혹함을 생각하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울었다.] 그는 묻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벌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안에서 솟아 오르는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오로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리치에게, 그 당시에는 기쁘게만 느껴졌지만, 지금와서는 하찮고, 뭔가 불결한 것으로 조차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년 시절로부터 멀어지면서 현재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기쁨은 점점 보잘것 없이 되고, 의심스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나는 정상에 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내 발끝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 어쩌면 자신의 살아 온 방식 전부가 제 길에서 벗어나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이 기괴한 생각은, 도저히 그가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상념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구심은 한시도 그를 놓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그는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의 무서운 비명이, 그가 죽기 전 삼일 동안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말기 환자의 심리를 알기 위한 키 워드가, 이 소설에는 몇 개 있습니다. 첫째로 질투, 그리고 고독입니다. 건강, 힘, 활기, 생명, 이러한 모든 것을 다른 이들에게서 보게 될 때, 이리치는 모욕을 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병자는 고독합니다. 병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 자신의 몸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자기 혼자 뿐이라는 걸잡을 수 없는 고독. 이리치가 방에서 죽음과 마주하고 있을 때, 문 틈으로부터 건강한 가족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조심스러운 웃음소리마저 들립니다. [바다 밑바닥에도 땅 속에도, 이 이상의 고독은 어디에도 없을 것만 같은 완전한 고독] 안에서 그는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자는 이리치를 더욱 더 괴롭게 한 것은 거짓, 허위라고 말합니다. 웬지 모두에게 승인 된 거짓. 그에게 쏟아지는 위안의 말, 누구나가 취하는, 조금도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태도.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이라면 병자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심각한 상황을 거짓으로 속이려 할 뿐만 아니라, 이리치 본인까지도 이 위선에 동참시키려 하고 있다. – 이 사실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극 구경을 가는 가족들이 그의 침대 옆에 둘러 모입니다. 그 배우는 멋있다거나, 오페라 클라스는 어디에 있다거나, 어느 때와 다름없는 가벼운 회화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 도중에,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입을 딱 다무는 것이었습니다. 이리치가 눈을 번뜩이면서, 앞을 계속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맙니다.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퀘메어 놓은 부분이 터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공포가 일동을 덮칩니다. 이리치를 괴롭히던 것은 이러한 거짓이었습니다.

병자에게 시간의 흐름은 언제나 똑 같습니다. (아침이 오건, 밤이 되건 병자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이것을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리치에게 [아침이건 밤이건, 금요일이건 일요일이건, 그 어느 것이라 해도 변하는 것은 없었다. 조금이라도 가라앉지 않고 욱신거리는 괴로운 통증, 끊임없이 멀어져 가면서, 게다가 여전히 소멸되지 않는 생명에 대한 의식, 유일한 현실로서 시종일관 머리를 덮고 있는 두렵고도 가증스러운 죽음, 여전히 변함 없는 허위, 그곳에 어떤 하루가 존재하고, 일주일이 있으며, 시간이 있다는 것일까?]

한편, [죽음]을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에 대한 별인가 물으며, 자신의 인생이 허위로 가득한 것은 아니었던가라는 의구심으로 심히 괴로워하는 이리치의 최후가, 짧은 마지막 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아직은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하며 허둥대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용서해 줘, 어서 그들을 이 고통에서 놓아 주고 나도 벗어나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빛을 보게 됩니다. 소설은 이리치의 다음과 같은 마음의 외침으로 끝납니다. [아아, 그랬단 말인가! 이렇게 기쁠 수가! 더 이상 죽음은 끝났다. 이제 죽음을 없어진 것이다!]

주인공의 [죽음의 수용]을 그런 마지막 장에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리치의 고통을 보아온 우리들은, 정말 급작스러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순간 – 모든 과거가 이 하나의 점에 옹집되고, 그리고 모든 미래가 초래되는 이 순간)에 주인공에게 일어난 이 돌연한 전회.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것일까.

다음으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려 합니다. 제일 처음은 말기 환자와의 인

터뷰 기록입니다.

S씨는 48세로 동포 이세의 남성입니다. 반년 전부터 원인 불명의 암성 복막염 때문에(그 자신은 자기의 병이 간장병이고, 그 때문에 복수가 찬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두 곳의 큰 병원에 입원해 왔지만, 저와 이야기를 한 것은 이 A병원으로 바꾸어 입원한 지 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식사 섭취 불능으로, IVH(高칼로리 輸液)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비교적 밝았던 것을 의외로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바로 그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IVH의 내용물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이대로만 간다면 곧 끓은 죽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좀 더 빨리 옮겨 왔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S씨와는 두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약 한 달정도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하, 짧게 요약해서 말하겠습니다.

### <첫번째 대화에서>

S씨에게는 세 명의 아이들과 부인이 있는데, 장남은 동경의 일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아래로는 아직 11세와 9세의 아이들이 있다. 그는 10톤짜리 덤프트럭을 한 대 가지고, 콩크리트라든지 산에서 채석한 것을 현장으로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숙취로 힘들어도(그런 일은 자주 있었다) 현장에 짐만 운반하면 낮잠도 충분히 잘 수 있었고, 일은 편했다.

그가 복부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낀 것은, 반년 정도 전인 가을경이었다. 그때까지는 원래 건강했고(건강했을 때는 체중이 90킬로그램이었다), 병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지만, 일주일 이상이 되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A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그 때 복수를 지적당했다. 그는 아내와 의논해서, B종합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했다. 그곳은 설비도 갖추어져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하고 [온갖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복수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 있느냐며, 아내가 아는 사람의 연줄로 효고현의 C 시민 병원으로 옮겼다. 이 때는 복부가 팽만해서, 식사 섭취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곳에서는 간이 나빠서 복수가 찬 것이라고 했고, IVH가 실시되었다. 그 무렵은, 말하기도 귀찮고, 신문도 읽기 싫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운 채, 병문안으로 사람이 와도 힘드니 빨리 가 줬으면, 하는 생각만 했다고 회상했다. 그가 이곳 A병원으로 다시 옮겨 온 것은, 단지 자택에서 면 C병원에 다니는 아내가 안쓰러워서였다.

그는 자기가 간장병에 걸린 것이, 자신의 생활 태도, 즉 술을 너무 마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병의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심해서, 거의 매일처럼, 아침

까지 친구와 술을 마시며, 이대로 가면 병이 날 것이 틀림없다는 예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한 두려움을 안고서도 술을 계속해서 마신 것은 사교상으로, 자기는 원래 본질적으로 무른 성격이라서, 권유당하면 쉽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입원 생활 동안,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반성뿐. 만약 이 병이 낫는다면, 술을 끊고, 골프나 치면서, 아내를 소중히 하려고 한다. 이 나이가 되어 이런 병에 걸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행운이었다. 지금이라면 젊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만약 과거 그대로의 생활을 계속하며 나이먹어 갈 일을 생각하면 오싹해진다는 것이다. (거래)

그는 나가사키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토건업을 경영하고 있었고, 조선인 인부를 많이 데리고 와서 큐슈 여기저기를 건너 다녔다. S도 함께였다. 겨우 정착한 곳이 미야자키로, 16세까지 거기서 지내게 된다.

그의 부친은 1919년, 경상도에서 일본으로 건너 왔다. 그의 모친도 일본으로 건너 왔는데, 크리스챤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의 권유로 미야자키의 크리스트체 학교에 다녔다. 그는 그곳의 신부 중 한 사람이 삽어, 그 때문에 크리스챤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 배운 자유 의지에 대한 문제나,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며, 찬송가도 부를 수 있다. 그 학교에서 조선인은 자기 혼자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계속 감추고만 있었다. 부친의 사업이 실패해서 오사카의 이쿠노로 이주했는데, 오사카에 와서 동포 친구가 생기고 비로소 [자신의 자아를 내어 보일 수 있게 되었다]. 그와 친한 친구가 아홉 명 있는데, 모두 동포이다. 한국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서투르게나마 한 마디씩은 그들에게서 배우고, 가라오케에 가도 의식적으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다.

지금까지 괴로워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느냐는 나의 질문에, 한동안 말 없이 있다가, 머뭇거리며, 일본의 발달된 현대 의학이라면, 이 정도의 병은 (나을 거라고), 자신의 저항력만 (있다면). 죽음을 걱정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지금의 주치의 솜씨는 확실하다고 들었다. 아내도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말해 주었고, (그러니까 나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단락은 확실하지 않다>

### <두번째 대화에서>

앞의 대화를 하고서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이에 S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머리를 감지 않은 지 꽤 된 듯 기름기로 갈라져 있었고 비듬도 보였다. 수염도 많이 길어 있었다. 파자마는 그대로 계속해서 오래 입고 있었던 모양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피부나, IVH를 고정시키기 위한 반창고에는 머리카락이 많이 달라 붙어 있었다. 표정은 완전히 침울해져 있었고, 눈빛도 어두웠다.

S씨는 힘들게 입을 열었다. [매일 아침, 오늘은 조금이라도 좋아져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일어나지만, 언제나 마찬가지로,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똑 같은 날들이 지나갑니다. 더 나아진다고 하기보다, 악화되어 가는 느낌마저 듭니다. 선생님은 저의 병은 간경변증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나쁜 상태로, 그렇게 간단하게는 낫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을 때까지는 수개월 정도 참지 않으면 앓된다고 각오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초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일하던 사람이 그대로 트럭 일을 계속해 주고 있지만, 이 업계도 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맡기고만 있으면 지탱해 갈 수 없을 것이 눈에 선합니다. 아내가 여기저기 다니며 관청하고 교섭해 준 덕분으로, 입원 비용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렇다 할 정도의 재산은 없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을 팔면 꽤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곤란해지기 때문에 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이런 병에 걸리다니,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옥상에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우리집 근처에 사는 여기 간호사가 훨체어를 밀어 줄테니 밖에 나가서 벚꽃 구경을 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을 질질 끌고(IVH를 가리키며) 사람들의 호기심어린 눈에 이 몸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것도 싫습니다. 지금 저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테레비를 보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같은 방 사람하고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일은 거의 못합니다. 하루에 세 컵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고작입니다. 딱 한번 아내가 만들어 온 주먹밥을 반 정도 먹은 적이 있지만, 그 다음 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후로 절대 음식은 입에 넣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간경변증은 아주 큰 병이지요? 간장병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은 없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전 믿지 않으니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거나 그런 것을 위함이 아니라, 현재의 돈벌이라든지, 병을 낫게 해 주거나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은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생각해 보기는 합니다. 가장 큰 잘못은 왜 좀 더 빨리 병원에 가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갔었다면, 이라고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덜 마셨더라면.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쁜 일을 잊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쁘다고 마시고, 슬프다고 마셨지만, 괴로워서 마신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인터뷰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털어 놓고 나면 조금은 기분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건강해져서 다시 일을 하는 것, ...이대로 좋아지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쓸 수 있는 모든 약을 써서 치료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고,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치료법도 생긴다고... 하지만, 몇 년 정도 더 지나서, 의학이 좀 더 발달했을 때 이 병에 걸렸다면...]

[정말 속에 있는 말이야, 쉽게 말할 수 없지요.] 이렇게 말하고 S씨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말이 막혔다.

[지금처럼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그런 평범한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는.....]

[오늘은 할 이야기 거리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합시다]

이 대화를 하고 난 수일 후, 증세가 급변하여, S씨는 죽었습니다.

S씨와의 대화를 다시 읽고, [이반 뇌제의 죽음]과 유사한 것에 놀랐습니다.

첫번째 대화를 했던 시기는 [죽음의 순간]이라는 책을 넬 큐플러 로스가 말하는 <거래의 단계>입니다. 병세가 호전되면, 술을 끊고, 아내에게 잘 할 것이다. 누가 권해도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결의는 거래입니다.

두번째 대화의 기조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 병세에 대한 초조함과 극히 강한 억울함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적당히 얼버무리던 S로서의 연기는 없고, 있는 것은 그의 내부로부터 끓어 오르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확실히 S씨는 [죽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혹은 [죽음]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앞의 대화에서 [죽음]은 무의식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잊으려고 해도 그것이 그의 앞을 항상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과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한없는 그의 고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최후의 순간에, 단 혼자서 [죽음]과 맞서야만 합니다. 그는 불과 수 시간밖에 함께 한 적이 없는 저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 [속에 있는 말이야, 쉽게 말할 수 없지요]. 그는 무엇을 말하려 한 것일까. 헤어질 때, 또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저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는 [죽음]을 받아 들였던 것일까요.

다음으로 자택을 마지막 가는 장소로 해야 한다고 고집하던 74세의 일세 동포 여성 K씨와 그 가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려 합니다. 그녀는 제가 집도했던 직장암 수술을 받은 수년 후에, 다발성 폐전이, 전이에 의한 폐색성 황달, 두부 피부 전이의 상태로 저의 진료소를 찾아 왔습니다. 그녀는 최초의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병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은 외래 치료를 강하게 희망했지

만, 우선 황달은 외과 치치료 경감시킬 수 있다고 설득하고, K병원에 부탁해서 내답잖루를 만들고 그 후 진료소에서 진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발열이 있고 호흡 곤란으로 100미터도 걷지 못했지만, 가족들이 번갈아 부축해 가면서 진료소까지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 상태가 약 사개월 계속 되었을 때, 환자는 치바에 있는 딸의 집에 다녀오고 싶다고 합니다. 딸도 열심히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많이 망설인 뒤에, [여행지에서 죽어도 좋습니까]라고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대답을 듣고 허가를 했습니다. 환자는 기쁜 듯 몇 번이고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경파를 쓴 소개장을 주고, 만일 긴급한 사태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도록 주의해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치바의 바다 근처에 있다고 하는 딸네 집에서 약 2주일을 무사히 지냈습니다. 그 동안 몇 번인가 저는 본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바에서 돌아 온 수일 후에 환자는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십일 후에 자택에서 죽었습니다. 환자가 위독한 상태라는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환자가 죽고 난 뒤였습니다. 그 때의 광경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주위를 가족들이 둘러싸고,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올면서 몸을 닦아 갑니다. 그것은 슬프면서도 그리운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어렸을 적에, 증조부가 집에서 돌아 가셨을 때,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그 주위에서 올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고생하며 키우고, 훌륭하게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친 뒤, 모두에게 배웅받으며 돌아 가신 어머니의 얼굴, 거기에는 더 이상 고심하는 표정은 없었습니다.

또 한 예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만년을 보내고 있던 80세가 넘은 건강한 할머니, H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후세에서 진료소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매일같이 진료소에 왔습니다. 그녀는 그 지역의 소위 보스같은 존재로, 선생님을 위해서라며 많은 신규 환자들을 진료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또 열이 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진료소에 갈 수 없으니 집으로 와 달라고 전화로 저를 불러내곤 했습니다. 소위 왕진인데, 가 보니 큰 집으로, 그녀는 별채에 있는 아주 좋은 방에 누운 채 저를 반겼습니다. 그녀는 차남 부부와 동거하고 있었고, 왕진을 가면 품위있는 며느리가 죄송스러워 하며 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H씨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나서 혼자 손으로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고, 아들들은 회사 사장, 딸들은 훌륭한 집안에 시집 보냈다고 말하며, 아이들이나 손자들이 자신을 얼마나 정성스레 모시는지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딸하고 가부키좌에 다녀 왔다거나, 도시락이 맛있어서 선생님에게도 하나 가져다 드리고 싶었다는 등. H씨의 입버릇은 [나는 여한이 없으니, 언제 죽어도 좋아요. 하지만 선생님, 죽을 때는 꼭 우리 집에서 죽을 수 있게 해 줘요.]라는 말입니다. 그런 H씨가 어느 날, 얼굴 색

이 변해서 진료소로 달려 왔습니다. 흥분해서 몸을 떨고만 있는 그녀를 애써 진정시킨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젯 밤 집에서 다다미 위에 실례를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변을. 그것을 본 며느리가 [도깨비 같은] 얼굴로 그녀에게 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늙은이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저에게 호소하며 흐느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입니다. 그녀에게 빈변과 탈항이라는 증세가 나타난 것은 H씨는 하루에 몇 번이고 셀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에 갑니다. 그 때마다 탈항이 일어나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아이처럼 엉덩이를 누르면서, 아파 아파라며 우는 것입니다. 육조에 들어가 따뜻하게 하면 쉽게 가라앉는 것이지만, 그렇게 몇 번이나 목욕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힘들어진 며느리는 H씨를 노인 시설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둘러싸고 시집간 딸들이 돌아와서, 떠들썩한 말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현장을 저는 보지 않았지만,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H씨가 자랑하는 아이들이 서로 말다툼을 합니다. 노인 병원에 넣는다니, 어머니가 불쌍하다, 남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그럼 누가 병시중을 드나. 그녀의 자랑, 기쁨이 소리를 내며 무너져내립니다. 이 사건은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결말이 났습니다. H씨가 집 안에서 넘어져 대퇴골을 골절한 것입니다. 구급차가 오고 그녀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입원한 그녀에게 아이들과 손자들이 병문안을 옵니다. 그 후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녀는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보고하러온 딸을 들으니, 입원 후 H씨의 항문에 보이던 증상은 거짓말처럼 없어지고, H씨는 편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 교찰

이반 이리치의 [죽음의 수용]에 이르는 전환은 왜 일어났을까요. 작자는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열렬한 크리스트교 신자인 톨스토이의 종교관에 해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것은 그의 필사적인 물음,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건 물음, 그 물음에 의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묻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을 깨달음으로 밀어 넣는다고 한 것은 하이데거입니다. [묻는다는 것이, 물어 가면서 자신이 스스로를 변신시키고(진정한 물음이란 모두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뚫고 하나의 새로운 장소를 열어내는 것이다] (<형이상학입문>).

이리치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 비로소 진지하게 묻고, 그리고 새로운 장소를 스스로가 열어 낸 것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장소, 우리들이 매여 있는 세상이나 허식의 세계와는 다른 장소.

S씨 또한 어떤 물음 앞에 내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말 속에 있는 말이야, 쉽게 말할 수 없지요]. 그 역시 이리치처럼 인생을 돌아 보고, 어떤 것에 대해 집요하게 묻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을 묻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도대체 왜, 존재자가 있는 것일까, 오히려 무(無)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형이상학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히려 무(無)-죽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죽음]이 있기에 생(生)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은 이런 물음을 매일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을 물을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더욱! 누구나가 한번쯤은, 아니 아마도 가끔은, 그렇다고는 확실히 모른 채 이 물음의 숨겨진 힘에 살며시 닿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마음 속의 환호 가운데서도, 어쩌면 지루한 일상의 흐름 속에서도, 어디서엔가 그 물음이 들려 오는 일이 있습니다.

소설 [이반 뇌제의 죽음]에서 실은 첫 장에 중요한 장면 묘사가 있습니다. 이리치와 가장 친했던 동료가 고별식에 참석해, 관 안에 있는 이리치를 보는 장면입니다. [이리치는 완전히 달라져서, 동료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한층 더 야위어 있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죽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얼굴은 이 세상에 있을 때보다도 아름답고, 가장 그럴듯 해 보였다. 그 얼굴에는, 필요한 일은 다 마쳤다, 그것도 훌륭하게 해 냈다, 라고 말하고 있는듯 한 표정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표정에는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비난이라고 할까, 주의라고 할까, 그런 것이 느껴졌다. 그렇게 주의하는 빛이, 동료의 눈에는 그 장소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적어도 자신에게는 관계가 없는듯 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웬지 불쾌해졌기때문에, 다시 한 번 성급히 가슴에 성호를 긋고, 아주 무례하게 보일 정도로 황급히(그 스스로 그렇게 느꼈다) 흑발길을 돌려서, 입구 쪽으로 가 버렸다.]

그 [물음]이 들려 온 이 결정적인 순간, 동료는 단지 불쾌감만을 느끼고, 그것을 어서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든지 죽은 이를 보고 느끼는 전율의 정체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K씨도, H씨도 마찬가지로 이 물음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K어머니, 그녀는 몇 차례나, 긴 세월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을 가깝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몸이 피로워도 미소라고 조차 말할 수 있는 표정을 잃지 않고, 조용히 [죽음]의 길을 떠난,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태도는, 진정으로 물은 자만이 아는 위엄으로 차 있습니다.

H씨의 경우도 그 중 하나의 변이형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걸고, 목숨까지도 걸고, 자기의 존재를 지켜 내고, 가족들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넘어져서 골절 당한 것이 그녀의 의도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체가 반응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물음, [우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영원의 물음, 그것은 결코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물음 일지도 모릅니다. 답이 없는 물음, 그런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의식했을 때 인간은 오로지 혼자서 그 물음과 마주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병명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지한 이상은, 환자의 곁에 언제나 있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곁에서 그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경험을, 그가 바라는 것을 언어화하는 일을 도와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경험을 해왔다. 그러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의 유물을 받은 나와 아이들이 있는 한, 당신의 삶은 계속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손을 이렇게 쥐고 있다.

이것이 터미널 케어의 출발점이며, 도달점입니다.



## 투고규정

1. 『국제고려학』(이하, 본지)은 코리아학에 관한 논문, 서평 등을 게재, 발표함으로써 코리아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2. 본지에 투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고려학회(이하, 본학회)의 회원
  - (2) 본학회가 투고를 의뢰한 사람
3. 논문, 서평의 심사는 본지편집위원회가 위임한 심사위원이 하며 채용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4. 한글로 쓴 원고는 정서되어 있어야 하며 영어로 쓴 원고는 타자로 작성된 것 이여야 한다. 한글일 경우는 “아래아 한글”, 영어일 경우에는 “Word Perfect”로 입력한다.
5. 원고의 분량은 다음과 같다. 한글 원고일 경우 논문은 16,000자 정도로 하며 서평은 2,000자 정도로 한다. 또한 영문 원고일 경우 그 분량을 각각 10,000단어, 1,200단어를 기준으로 한다.
6. 편집위원회는 교정쇄를 필자에게 송부하며 필자는 교정쇄를 받으면 조속히 점검 및 교정을 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7. 원고는 다음 주소에 보내야 한다.

〒581-8511 日本 大阪府八尾市楽音寺 6-10 大阪経済法科大学内  
国際高麗学会 「国際高麗学」編集委員会

TEL : 0729(41)8211 FAX : 0729(41)4665

8. 게재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논문모집 요강

『국제고려학』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보내 주신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선정작업을 거쳐 본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넓고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본지가 코리아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Notes for Contribu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JKS) i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K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 Studies through the publication of articles and book reviews on Korea.

Contributors are Limited to:

- (1) members of ISKS; and
- (2) those who are asked to contribute by ISKS.

All manuscripts submitted will be referred to editorial advisers for careful review. The Editorial Board, however, has the say in those selected for publication.

All manuscripts should be typed by “아래와 한글” or "Word Perfect"

Articles should not exceed 16,000 characters in Korean and 10,000 words in English; book reviews should not exceed 2,000 words in Korean and 1,200 words in English.

Proofs will be sent to authors for correction before final publication.

All contributions to the journal should be sent to:

The Ed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6-10, Gakuonji , Yao, Osaka, 581-8511, Japan

## 국 제 고 려 학

---

발행일 : 1999년 12월 15일

편집인 : 「국제고려학」 편집위원회

발행처 : 국제고려학회

〒581-8511 日本 大阪府八尾市楽音寺 6-10

大阪経済法科大学内 国際高麗学会 本部事務局

TEL : 0729(41)8211 (ex.221,222)

FAX : 0729(41)4665

---